

2015. 9. 30

사회경제 조직간 내부거래를 통한 『신용교환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사회혁신공간 데어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내부 거래를 통한 신용교환 시스템이란,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법정화폐의 매개 없이 자신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서울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조직들의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매우 높으나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사회적금융 전달 체계가 미비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현재적 조건에서 이들 사회경제 조직들이 시장이나 공공 채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법정화폐의 도움 없이 회원들끼리 직접 교환하는 거래 시스템은 사회경제 조직들 간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거래구조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까지 참여시킬 수 있다면,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 사회경제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제 출 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센터가 의뢰한 연구용역 “사회경제 조직 간 내부거래를 통한 신용
교환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9. 30

사회혁신공간 테어 /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목차

그림 및 표 차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3
1.3 용어의 정의	4

제2장 신용교환체계의 이해

2.1 개념 및 구조	5
2.2 기대 효과	9
2.3 해외 적용사례	
2.3.1 스위스, 비어	13
2.3.2 프랑스, 낭트화페	19

제3장 사업 환경 분석

3.1 서울시 사회경제조직 현황 분석	23
3.2 적용 타당성 분석	
3.2.1 자원 순환 측면	25
3.2.2 통화 공간 측면	27
3.3 법률 의제	31

제4장 시스템 구성 및 운영

4.1 작동 원리	34
4.2 운영 주체	
4.2.1 역할 및 기능	39
4.2.2 조직 구성	40
4.2.3 수익 모델	41
4.3 순환 체계	
4.3.1 회원의 권리 • 의무사항	44
4.3.2 화폐 발행	46
4.3.3 지급결제 수단	47
4.3.4 결제 프로세스	49

제5장 사업 실행	
5.1 사업추진 단계	51
5.2 비용처리 방법	54
5.3 시스템 운영 및 관리	
5.3.1 플랫폼 전략	57
5.3.2 회원 관리	59
5.3.3 이벤트 및 홍보 방안	61
5.4 몇 가지 유의사항	63
 제6장 결론	 67
 참고문헌	

그림 차례

그림 1. 신용교환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 분석	10
그림 2. 신용교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가치 분석	12
그림 3. 비어은행 누리집 첫 화면	15
그림 4. 낭트화폐 작동구조	19
그림 5.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업종별 현황	23
그림 6.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자치구별 현황	24
그림 7.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업종별 자원호환 대상 수	25
그림 8.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업종별 자원호환성 지표	26
그림 9. 신용화폐, 실물(재화 및 서비스) 간 정상 교환 흐름	34
그림 10. 신용화폐, 실물(재화 및 서비스) 간 비정상 교환 흐름.....	35
그림 11. 사회경제 조직 간 신용화폐 시스템 구성도	37
그림 12. 신용화폐 기반 통합시스템 구성 및 화폐 흐름	38
그림 13. 운영센터 조직도	40
그림 14. 경비부담비율과 이자율 간 상관관계	42
그림 15. SECC 회원 등급별 신용한도 기준	44
그림 16. 모바일 뱅킹시스템 Cyclos	48
그림 17. SECC 지급결제 프로세스①	49
그림 18. SECC 지급결제 프로세스②	50
그림 19. SECC 사업실행 단계	51
그림 20. SECC 사업실행 단계별 추진주체 및 핵심 업무	53
그림 21. SECC 사업 비용구조	54
그림 22. SECC를 활용한 일일교환 장터 화폐흐름	62
그림 23. SECC 사업 장애물 및 극복방안	66

표 차례

표 1.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자치구별, 업종별 현황	28
표 2.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권역별, 업종별 현황	29
표 3. 서울시 권역별 신용거래 참여 사회경제조직 예상 현황	30
표 4. SECC 월 신용화폐 거래금액 및 수수료 구조	55
표 5. SECC 사업, SWOT분석	68

요약문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몇 년간 협동조합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제정, 정부의 지원 육성정책에 힘입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조직들 숫자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미발달함으로 인해 사회경제 조직들, 특히 성장기에 접어든 조직들의 대다수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사회경제 조직들이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이들 사회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직 간 내부거래B2B 방식을 통해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돈(=법정화폐)을 취득하는 전략이 아니라 다자간 물물교환Barter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법정화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 내 현금(=법정화폐) 흐름을 개선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므로써, 향후 한국적 맥락에서 신용거래의 적용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용교환체계의 이해

■ 개념 및 구조

신용교환Credit Exchange이란 거래를 희망하는 복수의 주체들이 신용을 매개로 서로 교환하고 싶은 것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신용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돈, 즉 실물 화폐를 쓰지 않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거래단위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 교환 과정에 필요한 수단은 개별 참여자들의 신용과 신용이 기록된 장치(=계좌)뿐이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 거래방식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모든 참가자가 이 무현금 거래방식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가자들 간 거래가 균형상태Condition of Balance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가 현금 거래를 더 원하거나 수요·공급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신용교환은 이상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일반적으로 신용교환체계가 원활히 움직이지 않는 원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회원 수가 너무 적거나, 교환되는 품목이 제한적인 경우,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회원들 간의 채권채무가 청산되지 않음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참여주체 수와 거래량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야 하고, 거래 내용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과 규범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거래가 막힘이나 쏠림현상 없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교환시장이 알아서 작동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의 적절한 개입Intervention 전략이 필요하다.

신용교환 시스템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청산소Clearing House다. 청산소는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신용을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중앙통제소 역할을 수행한다. 누가 어떤 거래를 원하는지, 누가 신용을 많이 소비했고 누가 신용을 쌓아두기만 하고 안 쓰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청산소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원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산소 설치 여부가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임에는 분명하다.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거래소Exchange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신용교환 체계가 창출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이 교환방식이 개별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회원 간 친밀도 향상, 공동체성 증진과 같은 사회적 효과다. 전자가 단기적인 효과라면, 후자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편익이란 신용교환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시스템 안에서 조달하게 됨으로써 부족한 현금(=법정화폐)의 결핍을 메우는 것을 말한다. 상호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품목과 수량이 매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참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친밀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란,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연대감과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신용교환 방식은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각의 조직들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협력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뢰 자본 확산을 통한 협력 기반의 조성은 외부의 충격(External Shock)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의 자립을 강화시켜주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외부 충격이란, 경기 변동에 따른 판매부진,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공공구매 실적 감소 등 사회경제 블록 밖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말한다.

■ 해외 적용사례① : 비어

비어는 약 4만 5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80년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민간 지불수단이다. 비어은행의 모체가 되는 비어화폐는 이자가 붙지 않는 불임화폐로, 창설 당시의 기본이념인 상호부조 즉, 교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끼리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교환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비어의 거래방식은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교환 방식과 같다. 모든 회원들은 각자 독립계좌를 가지고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구매자는 우변(-)에 금액이 각각 기입된다. 구매자는 총 금액 중 일부를 비어로 지불해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판매자는 거래금액 중 일정 비율을 비어로 받을 의무가 있다.

시스템 운영 원리 측면에서, 비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회원들 간 거래 및 신용청산을 중재하는 기구인 청산소(=은행)가 시스템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해 물물교환 수준을 뛰어넘어 사업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신용확대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비어 모델에서 거래를 중재하는 기관 즉 청산소 역할을 담당한 곳이 비어은행이다. 비어은행은 회원들이 교환시장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구매자와 판매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크고 작은 강소기업들을 시스템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용확대 정책이란, 회원별 신용거래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 통제함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어는 신용을 쓰고도 잘 갚지 않는 불성실한 회원들은 신용한도를 줄이거나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한도가 모자라 거래에 제약을 느끼는 회원들에게는 「대출」이라는 형태로 신용한도를 높여줌으로써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비어는 회원별 신용한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실수요를 창출, 신용교환 체계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운영비로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었다. 거래 활성화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다. 이 신용 확대 및 조절정책이 비어를 오늘에 이르게 한 핵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 해외 적용사례② : 낭트화폐

낭트화폐는 현재 프랑스 낭트 시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 중인 지역화폐다. 2012년 초 시 정부의 주도로 민관 협치 조직을 꾸려 프로젝트를 시작, 약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에 출범했다. 지역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낭트화폐는 스위스 비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들이 신용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용화폐다. 기본적으로 비어의 운영원리를 따르고 있으나, 기업 간 신용거래B2B 뿐만 아니라 개인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 방식을 함께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시스템 운영의 중추는 시에 존재하는 작은 기업들이다. 현재 낭트 시에는 약 2만 6천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며 이들 가운데 시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다.

시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고용 창출, 복지서비스 전달, 자원순환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1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이 영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낭트화폐는 비어 모델을 원형으로 삼아 한 단계 진화된 방식으로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신용화폐로, 이제 막 출범한 신생화폐가 향후 어떤 행보를 걷게 될 지 아직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낭트화폐의 성공 여부는 낭트 시와 은행 그리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시민들이 이 화폐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업 환경 분석

■ 서울시 사회경제조직 현황 분석

2015년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경제 조직은 약 2,884개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27.6%), 교육(15.3%), 일반서비스(10.9%), 문화예술(9.7%), 일반제조(8.7%)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재생(0.8%), 여행관광(0.9%), 부동산임대(1.0%) 분야에 종사하는 조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방송출판미디어가 5.9%, 사회서비스 분야가 3.8%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 교육, 일반서비스의 상위 3개 업종을 더할 경우, 나머지 15개 업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53.9%)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139개)보다 많은 업종은 6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개 업종은 평균값보다 낮거나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었고 이들 중 평균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종이 모두 10개였다. 결과적으로, 업종별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적용 타당성 분석① : 자원순환 측면

자원순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도·소매, 일반서비스, 일반제조, 교육 분야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들 4개 업종이 전체 사회경제 조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업종이 30%를 이루는 구조를 띠고 있다. 업종 분포와 매출이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낼 경우, 이들 4개 업종이 총 거래의 7할을 나머지 14개 업종의 나머지 3할을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원 호환성 측면에서,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의 내부 구성분포가 상당히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 다수가 내부 신용거래가 참여한다고 할 경우,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 분석결과가 신용화폐 교환 체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아니다.

■ 적용 타당성 분석② : 통화 공간 측면

신용화폐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이므로 원론적으로는 공간적 제약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성립 후 교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화폐 순환에 큰 문제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유통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여기서 핵심은 「무리 없이 화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공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이다.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을 행정구역 단위로 살펴보면 100개 이하의 자치구가 14곳, 100~200개 사이의 자치구가 10곳, 200개 이상이 1곳(강남구)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조직 수가 채 100개가 안 되는 곳이 전체 자치구의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물리적 경계를 세워 신용교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권역별로 나눌 경우 역시 동일 권역 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 조직 수의 편차가 커서 화폐 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치구들을 몇 개의 지역 생활권역으로 묶는다 해도 사회경제 조직간 내부거래를 통한 신용화폐 순환의 적정 규모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시 전역을 통화 공간으로 삼고 화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법률 의제

서울시 신용화폐 발행 • 유통과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 화폐 발행주체(=지원센터)의 법적 자격 기준
- 신용대출에 따른 반대급부(=이자) 수취의 법적 타당성 검토
- 화폐 거래에 따른 세금(=부가가치세 등) 납부 관련 기준

서울시 신용화폐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화폐 사용을 희망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이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전자거래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해주는 도구라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서울시 신용화폐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관은 동 법률에 의거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법적 형태 : 상법 상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최소 자본금(또는 출자총액) : 20억 원
- 인적 요건 : 전산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확보
- 물적 요건 :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전산실 보안장치 등

따라서 서울시 신용화폐를 사회경제 조직들뿐만 아니라 B2B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구조 B2C로 설계할 경우, 위에 열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 및 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화폐를 신용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행주체의 법적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경제 조직들 간 거래 방식을 적용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회경제 기업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매개체로서의 신용화폐는 이용자가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동 법률 상 등록 면제대상 조건만 갖춘다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정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 화폐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폐발행 주체가 회원들에게 신용을 제공해준 대가로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것은 금전(=법정화폐) 대부에 따른 이자 수취와는 성격이 다르다.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신용화폐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 즉 이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이 수수료를 법정화폐로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화폐를 사용하건, 교환수단이 신용화폐이거나 법정화폐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에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납세 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폐를 사용했는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 신용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될 세금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만일 교환수단으로 종이를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용화폐 거래가 탈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세금은 법정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폐 발행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작동원리

(가칭) 서울 사회경제 신용화폐(SECC)는 서울시에 있는 사회경제 조직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디지털화폐다. SECC 사용을 희망하는 조직은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화폐 운영센터(이하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SECC는 가입회원들 상호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법정화폐 대신 사용하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지불수단이다.

회원들은 할당된 신용한도 내에서 다른 회원들과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화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모든 회원은 고유의 신용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는 이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회원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 계좌는 음(-)의 상태, 반대로 자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양(+)의 상태가 되며 궁극적으로 모든 거래는 청산Settlement을 목표로 한다.

SECC는 담보나 증거금이 필요 없는 순수 신용화폐로, 신용 남용으로 인한 시스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규정이 엄격해야 하며 회원들이 이 거래지침Standard Exchange Manual을 충실히 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일 이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출 등 강력한 제재가 따라주어야 한다.

거래지침이란 채권(+)이건 채무(-)건 청산되지 않은 신용자산을 장기간 보유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급 결제 시 신용화폐를 통한 최소 결제비율을 지켜야 하고, 신용화폐를 다른 회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제정한 내부규약을 말한다. 회원들은 가입 전, 이 지침 준수에 대한 윤리서약을 하게 된다.

거래는 센터 누리집Homepage 내에 설치된 공개 거래소(=장터)를 통해 온라인이나 휴대용 통신기기 앱App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원사들은 자신들이 생산・판매・교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일정한 규격Form에 맞추어 게시해야 하며 SECC의 모든 회원들은 검색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제품을 항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희망하는 회원은 상대방에게 주문을 넣고 협상을 통해 결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신용한도가 충분하고 판매자가 동의할 경우 구매금액의 전부를 SECC로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의무 한도(비어, 30%) 내에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구매자는 이 조건을 수용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된다.

거래 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내역들은 모두 공개된다. 내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회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역 선택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간접적인 제품 홍보효과를 창출한다.

■ 운영주체

SECC 시스템 운영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센터의 역할은 통화 관리, 규칙 제정, 사용자(=회원) 관리,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경제 조직 간 신용화폐 모델을 전제로 할 때, SECC는 단지 계좌 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센터의 법적 자격요건이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화폐 발행 및 유통, 흐름 점검 등 통화관리는 센터의 고유 업무이며 핵심 기능이다. 화폐를 만들고 시스템 안에서 화폐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기능, 화폐 흐름을 점검·관리하는 기능, 돈이 잘 흐르도록 통화정책을 수립·적용하는 기능 등이 존재한다.

규칙 제정이란, 거래 시 모든 회원들이 필히 준수해야 할 거래 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서에는 신용화폐의 정의와 목적, 회원 자격 획득 및 상실 요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신용거래 방법 및 프로세스, 거래 및 이용 수수료 규정, 기타 신용거래에 필요한 제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회원 관리란, 가입·탈퇴와 같은 기본 행정업무를 비롯해 회원들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SECC는 강제력이 수반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변동(외부적 요인)이나 거래 부진에 따른 흥미 상실(내부적 요인) 등에 의해 언제든지 회원 이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에 대한 밀착관리가 요구된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란, 지급결제(=교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SECC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만일 전자결제수단 도입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 및 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협력기관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익모델

원론적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다. 편익과 비용의 함수 측면에서 보자면, SECC를 통해 편익을 누린 것에 비례해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 비용을 계산해 징구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모델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당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들어간 총비용 수준으로 비용 징구계획을 세워 사업을 집행한 후,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건혀 잉여가 발생하면 내년 사업을 위해 적립해두거나 회원들에게 되돌려주고 반대로 결손이 생기면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일시 후원금을 건거나 익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비용을 좀 더 많이 징구하는 식이다.

가장 보편적인 비용 충당방법은 수수료Fee를 받는 것이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 수준의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를 징수하는 것이다. 거래건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입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입확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수수료 징수는 정액이나 정률 또는 정액과 정률을 혼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정액이나 정률보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른 수익원천으로 이자Interests 수입이 있다. 이자수입이란 센터가 회원들에게 신용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한다. 신용한도(=기본신용)가 모자라 거래에 제약을 느끼는 회원에게 대출이라는 형태로 신용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일반적인 은행의 신용창조Credit Creation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작동 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지방정부(=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민간 기부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전자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 사업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인정해 센터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금Subsidy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공익재단이나 자선단체들로부터 기부나 후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SECC가 사회경제 조직들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조自助조직이라는 점, 나아가 향후 이 진영에 건강한 주체들이 많이 유입되어 규모화가 이루어진다면 내부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지원금에 기대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최초 SECC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준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전 예비 실험단계로,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획득해야 한다. 요건이란, 내부 규약이 정한 최소 거래실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 달성 후, SECC 회원이 지켜야 할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센터는 SECC에 가입한 회원(=준회원)에게 기본신용-Basic Credit을, 정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에게는 이에 더하여 추가신용-Additional Credit을 제공한다. 기본신용과 정회원 자격 획득 후 지급되는 최초의 추가신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 하지만 이후 거래실적이나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가신용의 한도는 등급Tier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준회원은 기본신용만을 사용할 수 있다. 준회원이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면, 추가신용을 배분받는다. 추가신용은 회원 등급에 따라 3가지 단계(T-1, T-2, T-3)로 차등 지급된다. 등급 심사는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매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등급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한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T-2」 등급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신용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본신용을 “1”이라고 할 경우 「T-3」 등급은 최대 “4”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총 신용한도는 “8”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T-1」 등급에 대출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가입 초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신용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 지급결제 수단

SECC는 종이화폐나 신용카드 등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은 쓰지 않고 커뮤니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자체 결제수단을 사용한다. 자체 결제수단이란,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기기 앱App을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별도의 결제수단을 특정한 이유는 SECC가 외부 세계와의 접촉 없이 「폐쇄적으로」 유통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SECC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 특정한 지급결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 간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Unit of Account만 합의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개수단은 종이로 된 약속어음이나 수표일 수도 있고, 암호화된 기호일 수도 있으며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회계장부여도 무방하다.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관리가 어렵고 화폐 흐름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 결제 전용카드는 익숙한 결제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수수료 등 관리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좋은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의성이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바일 기반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호체계Code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지급을 하고자 할 때, 앱App을 작동시켜 회원번호, 품목, 결제금액, 지급일시 등의 결제 정보가 담긴 「코드」를 센터와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발송해주는 것이다.

■ 결제 프로세스

지급결제란 거래 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며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방식과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법정화폐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결제과정은 자금의 이체를 지시하는 지급, 금융회사들끼리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는 청산, 실제로 소비자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결제라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SECC의 경우, 청산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지급과 결제만으로 과정이 마무리된다.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이유는 자금 중개기관이 단수(=센터)여서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센터에 알려주고(=지급) 센터가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신용화폐를 넘겨주면(=결제) 된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마친 후 센터에 지불요청을 하면, 센터는 구매자의 계좌에서 화폐를 인출해 판매자의 계좌로 넣어준다. 판매자는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구매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과정은 종결된다. SECC는 법정화폐와 무관한 돈이기 때문에 법정화폐 기반 계좌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 구성 측면에서, SECC의 지급결제 프로세스가 가진 특징은 작동방식이 단순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시장 결제방식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교환 가능한 제품 목록을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즉시 지불이 가능하다. 센터의 승인절차 및 결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D+1일)이면 충분하다.

□ 사업 실행

■ 시스템 운영 및 관리① : 플랫폼 전략

SECC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수요자)과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공급자)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SECC는 거래를 희망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모이는 광장이며 SECC 시스템 그 자체는 회원과 회원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Platform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룹들 간 연계 역할만을 담당할 뿐, 중간관리자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상통되는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하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SECC는 회원들 간 상호거래를 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플랫폼과 같지만, 개입의 정도가 이보다 훨씬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시스템 운영 및 관리② : 회원 관리

SECC 회원 관리의 핵심은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란, 특정한 사람이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선호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거해 한 번에 다수의 회원들을 지원하는 디지털 방식의 관리기법을 말한다. 이 원리에 따라 회원을 관리하려면 빅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회원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회원이 생산한 제품이 인기가 좋은지, 어느 업종에 구매요청이 몰리고 어느 업종이 거래상대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회원별 거래내역을 분석해서 다음에 어떤 품목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지를 예측해 마땅한 공급자가 생겼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전달해줄 수도 있다.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회원 관리란 곧 데이터 관리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힘은 데이터 관리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SECC 시스템의 효용가치가 달라질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원 관리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SECC 회원들이 제공해주는 각종 정보들을 취합●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해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적용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몇 년간 협동조합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제정, 정부의 지원 육성정책에 힘입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조직들 숫자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미발달함으로써 인해 사회경제 조직들, 특히 성장기에 접어든 조직들의 대다수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에 제정된 조례¹⁾를 근거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①진입장벽이 높고²⁾ ②원금손실에 대한 강박으로 기금 운영방식이 보수적이며³⁾ ③공급자 중심의 사업 설계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⁴⁾ 절대 다수의 사회경제 주체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법·제도적인 한계와 기금 운영주체의 무능이 겹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금융 영역에서조차 사회경제 조직들이 사업을 유지해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 자본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대다수 사회경제 조직들은 매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는 이제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과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시장이나 공공 채널을 통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여건에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가려면 매출을 늘리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자본력이나 기술수준 등 이른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영리기업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사회경제 조직들이 단기간에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사회경제 조직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이들 사회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직 간 내부거래B2B 방식을 통해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돈(=법정화폐)을 취득하는 전략이 아니라 다자간 물물교환Barter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조달하는 것이다.

-
- 1) 지방자치법(제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6조)에 의거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말함
 - 2) 1:1 매칭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조직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3) 융자(Loan) 이외의 다른 금융지원 방식을 일체 배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임
 - 4) 대상기업의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지원조건을 제시하고 따르도록 하는 경직된 질서를 말함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기업 간 물물교환 방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거래Barter Trade 관행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거래 방식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두 기업 혹은 두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수출액과 수입액을 균등하게 만듦으로써,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⁵⁾ 두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돈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 기업 간 교환방식이 통상적인 구상무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용화폐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신용화폐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법정화폐와의 호환互換 없이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되며 화폐가 가진 여러 기능 가운데 중 오직 「매개수단」의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돈을 말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법정화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 내 현금(=법정화폐) 흐름을 개선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향후 한국적 맥락에서 신용거래의 적용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용화폐에 대한 연구는 초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는 신용화폐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모델이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신용화폐 모델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 진영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일정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5)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돈이 아닌 제품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칭해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라 부름

1.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주제인 「기업 간 신용거래」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룩한 역사적 사례로 스위스의 비어와 프랑스의 낭트화폐를 들 수 있다. 스위스의 비어WIR은 1930년대 공황기에 만들어진 지역 소기업들 간의 내부거래 시스템으로, 최초 작은 협동조합 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몇 단계의 진화를 거쳐 정식 은행으로까지 발전한 대표적인 신용화폐다.⁶⁾

또 현재 프랑스 낭트 시에서 유통 중인 낭트화폐는 스위스 비어를 모델로 만들어졌으나 비어가 신용창조 방식을 통해 기업들 간의 거래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과 달리, 기업과 기업 간B2B 또는 기업과 개인 간B2C 상호교환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들도 교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공간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신용화폐 시스템의 대표적 두 모델인 스위스의 비어와 프랑스 낭트화폐 사례를 분석해 ①각각의 모델이 지닌 특·장점은 무엇이고 ②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 간 내부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떤 전제와 조건이 필요하며 또 ③시스템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스위스 비어가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선형적linear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금세기에 실험된 신용화폐 사업 중 과정과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비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낭트화폐의 경우, 한 단계 진화된 모형이라 할 수 있으나, 이제 막 출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평가를 내리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런 맥락에서, 두 신용화폐 모델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들과의 인터뷰⁷⁾를 통해 이 모델이 현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신용화폐 사업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단지 선행 사례를 근거로 연역한 추정estimation 일뿐이며, 이 분석 내용이 신용화폐의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신용화폐 실험의 성공 여부는 화폐 모델이 갖는 현실적 정합성과 사업 추진주체의 역량에 의해 달려있기 때문이다.

6) 국가로부터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화폐로 공식 승인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임

7) Focus Group Interview를 말함

1.3 용어의 정의

이 글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안화폐Alternative Currency란 법률이 정한 화폐가 아니면서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폐 일반을 통칭하는 개념이다.⁸⁾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국 또는 국가연합 영역에서 법률이 의해 강제 유통되도록 만들어진 화폐를 법정화폐Legal Tender라 부른다.
-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란 일국 내에서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화폐를 말하며, 국가화폐가 흐르지 않는 공백을 메우는 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돈(=법정화폐) 이외의 모든 돈은 보완화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신용화폐Mutual Credit Currency 또는 신용화폐란 개별 참가자들의 신용(=신뢰)을 지렛대 삼아 각자가 지닌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데 쓰이는 화폐를 말한다. 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계좌 상의 잔고를 기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라 할 수 있다.
- 청산소Clearing House또는 청산기구란 신용교환 시스템에서 교환을 중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별 참가자들의 거래 한도 설정, 신용 창조(=대출) 등 화폐 순환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이 교환되는 거래소Exchange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통화 공간Currency Space이란 화폐가 유통되는 일정한 범위를 말한다. 종이 등 실물 화폐의 경우,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통화 공간이라 할 수 있고 전자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전자화폐의 경우, 인터넷을 포함한 범 사이버Cyber 공간 전체를 통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 지급결제란, 거래 당사자들 간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법화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에서 지급결제 과정은 자금의 이체를 지시하는 지급, 금융회사들끼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청산, 소비자의 계좌에 자금이 이동되는 결제로 구분할 수 있다.

8) 화폐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환수단으로서의 돈이라면, 통화는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다름. 이 보고서에서는 화폐를 통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음

제2장 신용교환체계의 이해

2.1 개념 및 구조

신용교환Credit Exchange이란 거래를 희망하는 복수의 주체들이 신용을 매개로 서로 교환하고 싶은 것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신용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돈, 즉 실물 화폐를 쓰지 않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거래단위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 교환 과정에 필요한 수단은 개별 참여자들의 신용과 신용이 기록된 장치(=계좌) 뿐이다.

다자간 물물교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이 거래방식이 주는 편익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수중에 돈이 없어도 경제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자금 부족으로 현금이 동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생산한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것 말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대표적인 모델로 지역 교환거래 시스템인 레츠LETS를 들 수 있다. 레츠의 거래방식은 간단하다.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개인 거래계정을 부여받게 되고 회원들은 거래명부에 등재된 내용을 보고 필요한 품목을 주거나 받으면 된다. 상대 회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 받으면 (-)의 잔고에 계정에 기록된다. (+)잔고는 채권, (-)잔고는 채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집 정원 청소를 하는 일을 도와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회원 게시판에 올리고 을이 이 제안을 수락해 일을 거들어줬다면, 갑의 계정에서는 5만 원이 빠져나가고(-) 을의 계정에는 5만 원이 입금되는(+) 식이다. 회원들 간에 서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거래되는 품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레츠가 주로 개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스위스 비어WIR는 소기업들이 중심이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프랑스 낭트화폐SoNantes는 기업 간 거래(B2B)를 기본 축으로 놓고 개인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낭트화폐가 스위스 비어가 걸었던 길을 지도로 삼고 만들어진 신용화폐라는 점에서, 예전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거래 모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군가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또 구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현금 없이 신용을 통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줌과 동시에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책임도 함께 부여한 것이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 거래방식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❶ 하나는 모든 참가자가 이 무현금 거래방식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❷ 다른 하나는 참가자들 간 거래가 균형상태(Condition of Balance)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❶참가자가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 즉 현금 거래를 더 원할 경우 시스템 안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제 사정이 나쁘면 참여하는 인원이 늘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탈자가 증가한다. 현금흐름이 나아져서 굳이 이 거래방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 방식을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당장의 현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❷후자는 수요·공급 간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회원들 간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모든 회원들의 계정은 최종적으로 「영(0)」의 상태가 된다. 다자 간 교차 거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가 깨끗이 청산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어떤 회원은 채권(+)이 채무보다 많고 다른 회원은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기가 쉽다.

과거 외국의 많은 물물교환 클럽들이 중도에 문을 닫은 것은 이 때문이다. 거래 네트워크 안에서 참가자들 간 「짜깁기」를 조직화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스위스의 비어도 이 문제를 겪었다. 특정 사업 영역은 공급 포화 상태였던 반면, 또 다른 영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시스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⁹⁾

이렇듯 신용교환은 이상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일반적으로 신용교환체계가 원활히 움직이지 않는 원인은 ❶거래에 참여하는 회원 수가 너무 적거나 교환되는 품목이 제한적인 경우 ❷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❸회원들 간의 채권채무가 청산되지 않음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❶거래에 참여하는 회원 수나 거래되는 품목이 적으면 거래를 하고 싶어도 대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법정화폐를 매개로 움직이는 일반 시장이든, 신용화폐를 통해 작동되는 교환시장이든, 수요·공급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¹⁰⁾

9) 비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예정임

10) 흔히 지역화폐 실험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적절한 화폐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시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다음 ②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이 수요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 미달될 경우, 수요자는 해당 공급자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되면 수요자는 네트워크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크다. 신용교환 거래는 가격Price 원리가 작동되는 일반 시장과 달리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¹¹⁾

③채권채무 관계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을 쌓았으나 쓸 곳이 마땅치 않아 그냥 두는 경우(채권자)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상대의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채무자)다. 전자가 수요·공급 간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후자는 도덕적 해이¹²⁾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①참여주체 수와 거래량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해야 하고 ②거래 내용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과 규범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③신용거래가 막힘이나 쏠림현상 없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교환시장이 알아서 작동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의 적절한 개입Intervention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레츠 시스템은 회원 간 자유거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운영주체(=사무국)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을 위해 일부 레츠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일반계정Current Account 외에 신용을 거래하는 자본계정Capital Account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 신용이 부족한 회원이 여유가 있는 회원에게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신용을 빌리는 것이다.¹³⁾

다수가 참가하는 신용교환 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이 교환을 중재 혹은 조정하는 기구가 있어서 교환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시스템 운영이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마치 비행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돕기 위해 설치된 공항 관제탑처럼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말이다.

신용교환 시스템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청산소Clearing House¹⁴⁾다. 청산소는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신용을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중앙통제소 역할을 수행한다. 누가 어떤 거래를 원하는지, 누가 신용을 많이 소비했고 누가 신용을 쌓아두기만 하고 안 쓰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11) 신용교환 시스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수요자와 공급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2) 한도까지 신용을 발행하고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말함

13) 이 경우, 대부분의 레츠 클럽들이 신용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금전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규약을 정해놓고 있음. 신용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사무국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됨

14) 회원들 간 거래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중앙거래소'라고 불리기도 함

다자간 물물교환 거래에서는 회원들 각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거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물이 수도권 안에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 레츠가 신용 거래를 위한 마당을 깔아놓고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스위스 비어나 프랑스 낭트화페는 청산소가 시스템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상 시스템 운영의 「핵심」인 것이다.

청산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거래 권한(=사용 한도)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신용이 제공되며 회원들은 그 한도 내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한도가 너무 낮으면 거래는 활력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신용위험 즉, 과도한 부채 누적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회원들의 조건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신용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의 신용을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청산소의 역할이다. 과거 거래내역을 통해 각 회원들에게 배정Allocation할 수 있는 신용제공 기준을 각각 달리 적용함으로써, 일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¹⁵⁾

예를 들어, 신용거래를 더 많이 하길 원하는 회원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전년보다 한도를 더 늘려줄 수 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회원에게 신용한도를 늘려준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반대로 받기만 하고 잘 갚지 않는 불량 회원의 경우는 기존보다 신용한도를 줄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아예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이렇듯 청산소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산소 설치 여부가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을 아니지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임에는 분명하다.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거래소Exchange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15)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직전년도 거래실적을 분석해 당년도 신용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등 통계분석 처리가 따라주어야 함

2.2 기대효과

그렇다면, 신용교환체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신용교환 체계가 창출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하나는 이 교환방식이 개별 참여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고 ②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회원 간 친밀도 향상, 공동체성 증진과 같은 사회적 효과다. ①전자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라면 ②후자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간접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①경제적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신용교환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시스템 안에서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한 현금(=법정화폐)의 결핍을 메워주게 되므로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환되는 품목과 수량이 매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치열한 시장 경쟁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있는 사회경제 조직들의 경우, 조직간 내부거래 방식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것과 같기 때문에 조직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사회경제 조직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비단 개별 조직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②친밀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란,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연대감과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신용교환 방식은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각의 조직들이 「각자도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뢰 자본 확산을 통한 협력 기반의 조성은 외부의 충격(External Shock)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의 자립을 강화시켜주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외부 충격이란, 경기 변동에 따른 판매 부진,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공공구매 실적 감소 등 사회경제 블록 밖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요소들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만일 투입되는 비용(Cost)이 효용(Benefit)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곳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신용교환 체계를 통해 얻게 될 편익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효용(=편익)과 비용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은 신용교환 체계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효용과 비용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먼저 ❶공급자¹⁶⁾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참여자들 간 내부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사회경제Social Economy 발전에 기여했으므로 효용은 증가(+)했고 사회경제 부문 활성화로 인해 다른 효용이 감소(-)할 일은 특별히 생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용 측면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투자되었으므로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만일 ❶의 총합이 양(+)이라면, 공급자 입장에서 신용교환 사업에 자금(=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전체 합계가 음(-)이라면,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신용교환 시스템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 분석

다음으로 ❷소비자¹⁷⁾ 입장에서 살펴보면, 신용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재정이 나아졌으므로 효용이 증가(+)한 반면, 시장 매출이 줄어들었으므로 효용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거래 상대를 찾기 위한 탐색 등 시간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비용 증가(-)요인이 생긴 반면, 법정화폐 수요가 줄어들어 이자 등 금융비용을 아끼게 되었으므로 감소(+)요인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❸기존에 사회경제 조직들과 거래를 하던 시장기업의 경우, 신용교환이 활성화될수록 매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신용교환 사업으로 인해 이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므로 음(-)의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효용이 감소(-)한 것이지만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는 효용이 증가(+)한 것이므로 측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6) 여기서 공급자는 신용교환 사업의 도입 및 운영을 이끌어가는 추진주체를 지칭하며 통상 이해관계자 그룹(스위스 비어) 또는 지방정부(프랑스 낭트)로 볼 수 있음

17) 여기서 소비자란 신용교환 시스템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회원 즉, 신용화폐 사용자를 말함

만일 ①,②의 총합이 양(+)이라면, 즉 효용 증가 및 감소요인과 비용 증가 및 감소요인을 모두 고려한 값이 양(+)이라면 신용교환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비용보다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①,②의 합이 음(-)이라면 이 사업은 제고되어야 한다. 투입되어야 할 비용보다 경제적 효용이 적으므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효용 증가(+)요인과 비용 증가(-)요인이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가치가 상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②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만큼 시장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감소(-)된 매출이 발생(+된 매출에 비해 적기 때문에 총 효용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을 통해 동일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들은 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의 경우, 금융비용이 과거에 비해 줄었고(+) 정보 탐색 등 학습비용이 새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을 찾는 작업은 일반시장이나 신용교환 시스템이나 동일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비용이 더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관점에서 투입된 총 비용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효용 및 비용의 증감요인을 분석해볼 때 ①,②의 총합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즉, 사회경제 조직들 간 신용교환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적합하다’는 뜻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제외할 경우,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또는 성과Outcome를 만들 수 있는 기댓값이 높은 사업인 것이다.¹⁹⁾

이번에는 사회적 측면에서 신용교환 시스템 도입의 효용 및 비용관계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먼저 ④공급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여자들 간 거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효과 Network Effect²⁰⁾로 인해 사회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효용은 증가(+)한 반면,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투자하게 됨으로써 공급 탄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효용 감소(-)요인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비용 측면의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투자되었으므로 증가(-)요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④의 총합이 양(+)이라면, 공급자 입장에서 이 사업에 자금(=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합계가 음(-)이라면,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지므로 사업 추진의 명분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18) 보다 엄밀하게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한 측정이 필요함. 분석 전제조건 중 비용은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금액을, 편익은 매출액 증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며 이 보고서에는 투자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생략하였음

19) 산출이란 투입된 자원을 기초로 활동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을, 성과란 특정한 사업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함. 산출의 평가척도가 효율(Efficiency)이라면, 성과의 척도는 효과(Effectiveness)임

20)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한 수요가 형성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여기서는 신용화폐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 신용교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가치 분석

⑤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신용거래 활성화로 신뢰도가 향상되는 등 효용이 증가(+)했고 연대와 협력 등 공동체성이 확산되어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게 됨으로 총합은 양(+)의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 ⑥일반 시민들의 경우, 신용교환 사업 및 사회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등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제 효용과 비용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먼저 ④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효용 증가(+)요인과 비용 증가(-)요인이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가치가 상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⑤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비용 감소로 총효용은 증가했고 ⑥시민들의 경우 역시 양의 외부효과가 생겨 효용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효용 및 비용의 증감요인을 분석해볼 때 ④,⑤,⑥의 총합은 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즉, 사회경제 조직들 간 신용교환 사업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볼 때, 신용교환 시스템 구축작업은 적합한 타당성과 높은 기대효과를 가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1) 사회적 측면의 경우, 신용교환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량분석을 하기 어려움

2.3 해외 적용사례

2.3.1 스위스, 비어

비어WIR²²⁾는 약 80년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의 민간 지불수단으로, 국영화폐인 스위스프랑(CHF)과 함께 스위스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이며 동시에 협동조합 은행WIR Bank이다. 1936년 스위스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은행 인가를 받았고 현재 본점이 있는 바젤Basel 외에 베른, 로잔, 취리히 등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스위스 전역에 있는 4만 5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²³⁾ 은행 자산규모는 약 30억 프랑 수준이다. 비어은행의 모체가 되는 비어화폐²⁴⁾는 이자가 붙지 않는 불임화폐로, 창설 당시의 기본이념인 상호부조 즉, 교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끼리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교환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비어는 회원 네트워크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나 개인 경비, 투자 등에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목적 지불수단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 정부는 세금을 포함해 공공서비스 비용 지불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이 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허가했고 따라서 민간경제 영역에서 화폐 사용상 제한 범위는 없다.²⁵⁾

비어는 지급결제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로 훌륭한 마케팅 도구이기도 하다.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보지(=카탈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개하고 대금의 몇 %를 비어로 결제할 수 있는지를 알린다. 비어은행이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²⁶⁾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비어가 매출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거래방식은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교환 방식과 동일하다. 모든 회원들은 각자 독립계좌를 가지고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구매자는 우변(-)에 금액이 각각 기입된다. 구매자는 총 금액 중 일부를 비어로 지불해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판매자는 거래금액 중 일정 비율을 비어로 받을 의무가 있다.²⁷⁾

22) 독일어로 '우리'라는 뜻과 **WIRTSCHAFTSRING**(경제서클)의 머리글자임 (엔데의 유언, 2000)

23) 참여기업 수(4만 5천개) 이외 개인자격 참여자(대표) 수가 1만 5천 명 수준임 (www.wir.ch)

24) 폐쇄된 순환 고리 안에서만 유통된다는 뜻으로, 경제 링(Ring)으로 불리기도 함

25) 비어는 스위스 내에서만 통용되는 설계된 순수 국내화폐로, 국외는 물론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6) WIR와 스위스 국민경제 (Tobias Studer 지음, 정관역 역 / 2013) 참조

27) 비어를 통한 결제비율은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끼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 수령비율은 평균 30%임

지불 방법은 수표(=계좌이체)나 전자결제(=직불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²⁸⁾ 계좌 개설부터 지불결제 과정 전체를 비어은행이 중개한다. 비어은행은 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비로 충당한다. 일반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계좌 개설, 자금 이체, 용자 등 비어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신용화폐 중 가장 긴 역사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어의 오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어는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던 193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다. 당시 스위스의 모든 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기업 부도율과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1934년 10월, 자유 화폐이론²⁹⁾을 따르던 16명의 발기인들이 모은 출자금 4만2천 스위스 프랑을 기초로 상호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비어의 출발이다. 이후 가입 회원들이 급증해 1936년에는 회원 수가 3천 명이 넘었고 교환되는 재화 및 서비스 품목 수는 850종, 신용판매를 합한 총매출금액은 100만 스위스 프랑을 넘어설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간을 비어의 「실험기」라 할 수 있다. 많은 실패와 현실적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통해 성장의 기초를 닦은 시기이다. 특히, 비어 탄생의 이념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자유 화폐이론을 폐기하고 이자 및 시장원리를 수용기로 한 것(1948년)은 큰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50년대 초부터 1980년 후반까지 약 40년간이 「성장기」로 구분된다. 회원 간 신용교환 및 청산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해가면서 신용창출을 통한 이자수입이 생기면서 은행 매출이 처음으로 1억 프랑을 넘어섰고(1964년) 1987년에 10억 프랑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을 이룩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립하기 위한 선언(1958년)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198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변화기」로 볼 수 있다. 90년 초부터 인수합병 등 스위스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비어 회원 중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흡수되거나 하청회사로 편입되어 신용교환 체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부 사업영역은 과포화 상태를 형성한 반면, 다른 영역은 과소 현상이 나타나는 등 비어은행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는다.

28) 1995년부터 전자결제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비어와 스위스프랑 두 가지 화폐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비어 카드'를 출시해 사용하고 있음

29) 독일인 사업가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이 주창한 이론으로, 화폐는 저장 기능을 없애고 오직 지불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하며 따라서 화폐에 마이너스(-) 이자를 붙여 저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임

이 시기, 비어은행이 위기 탈출방법으로 선택한 길은 상업은행으로의 변신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신용 판매업을 하던 곳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이 되기로 한 것이다. 은행으로 탈바꿈할 것을 선언(1998년)한 이래 현재까지 비어는 스위스 금융 산업 내에서 독자적인 자기 영역³⁰⁾을 구축하며 비교적 잘 순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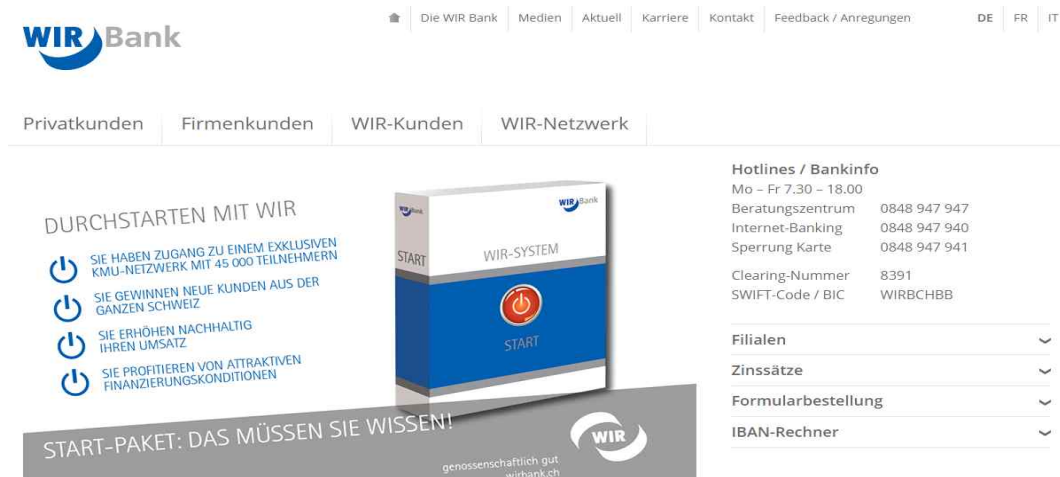


그림 3. 비어은행 누리집 첫 화면 (www.wir.ch)

비어의 변천 및 발전과정에서 주목해봐야 할 주제는 두 가지다.

① 하나는 미국, 유럽의 많은 물물교환 클럽들 Barter Clubs이 대부분 중도에 문을 닫았음에도 「비어가 오랜 세월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신용)화폐와 금융(은행)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① 전자가 비어 시스템의 핵심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면 ② 후자는 화폐와 은행의 관계설정 및 발전경로에 대한 올바른 상상을 알고자 함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이 질문에 대해 일정한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 현실에서 신용교환 화폐나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먼저 비어 모델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경영 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딱딱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흔적은 비어가 걸어온 역사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이념적 뿌리라 할 수 있는 자유 화폐이론을 폐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용단을 내린 것이다.

30) 스위스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삼고 은행업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되겠다는 의미임

시스템 운영 원리 측면에서, 비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을 꼽으려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하나는 회원들 간 거래 및 신용청산을 중재하는 기구인 청산소(=은행)가 시스템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고 ②다른 하나는 내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물물교환 수준을 뛰어넘어 사업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신용확대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①물물교환 혹은 신용거래 방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가 없을 경우, 거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다.³¹⁾ 만일 거래 참가자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구가 존재한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영·미에 존재하는 물물교환 클럽들과 레츠 같은 상호신용화폐들의 경우, 중앙사무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대다수 물물교환 클럽에서 중앙사무소는 행정적인 기능만 수행할 뿐, 거래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사무소는 화폐(=신용)를 창조하지도 않고 이 과정에서 자산 축적을 도모하지도 않으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도 은행 담보나 신용보증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순수한 서비스 제공자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비어가 이들 교환클럽들과 다른 점은 중앙사무소, 즉 청산소가 거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점이다. 비현금 물물교환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거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활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래를 촉진해가야 한다.

비어 모델에서 이 기능을 담당한 곳이 청산소 즉, 비어은행이다. 비어은행은 한편으로 회원들이 교환시장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구매자와 판매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왔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크고 작은 강소기업들을 시스템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³²⁾

②신용조절Credit Control 정책이란, 회원별 신용거래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 통제함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어는 신용을 쓰고도 갚지 않는 불성실한 회원들은 신용한도를 줄이거나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한도가 모자라 거래에 제약을 느끼는 회원들에게는 「대출」이라는 형태로 신용한도를 높여줌으로써 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31)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 부르며, 금융 분야의 경우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방법인 간접금융의 기본전제가 됨

32) 비어는 건설, 소매 거래, 숙박, 요식업종은 많은 반면, 간병,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이나 보험, 개인 투자 관리 등 소매금융 영역은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겪었음

신용을 더 원한다는 것은 시스템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구매할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매 요청 시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용거래 한도가 늘어난 회원이 시스템 내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 즉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만 잘 이루어진다면 거래는 당연히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느 만큼의 신용을 제공해줄 것인가. 누가 신용이 좋고 누가 나쁜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신용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신용남발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요구되는 일이다. 비어는 오랜 기간을 통해 누적된 자료와 통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회원별로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적용한 것이다.

이 방법에 의거, 비어는 회원별 신용한도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실수요를 창출, 신용교환 체계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운영비로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었다. 거래 활성화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신용 확대정책이 비어를 오늘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화폐와 은행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다자간 신용교환 방식에서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기구가 적절한 개입과 통제를 통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구가 꼭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신용이 제공되어 상호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신용교환 체계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어는 국가로부터 정식 은행으로 인가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 은행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민간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실용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를 중재해왔으며 신용창조 기능을 포함, 통화관리 정책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다면, 회원제라는 폐쇄된 고리 안에서 그 일을 해왔다는 것뿐이다.³³⁾

따라서 상호교환 방식에서 시스템 운영기구가 금융기관(=은행)인가 아닌가라는 형식적 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구조와 형태를 띠는 것이 회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적합한가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용교환 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제도적인 환경 여하에 따라 다르다.³⁴⁾

33)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 존재하는 협동조합 은행과 비어 은행의 차이점 역시 자체 (신용)화폐를 발행했는가 여부라고 볼 수 있음. 협동조합 은행들 역시 대부분 회원제를 기반으로 출발해 거대 은행으로 발전한 곳들이 많이 있으나 화폐를 직접 발행한 경우는 전무함

34)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 어디라도 비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체가 은행으로 발

제도권 내의 정식 은행이 되건 제도권 밖에 남긴 상호교환을 매개로 신용화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신용공여은행Credit-granting Bank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은행은 화폐 발행, 자금 중개 및 결제, 신용 창조 및 개선업무에 이르기까지 중앙 및 시중은행이 수행하는 제 기능과 역할을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어는 왜 상업은행이 되고자 했을까. 그 이유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비어의 핵심 서비스인 내부 신용교환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외부적 요인이란 대기업들의 경영전략이 바뀔에 따라 스위스 내 산업구조 재편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하며³⁵⁾ 그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이탈하게 됨에 따라 수요·공급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90년대 초반 비어가 상업은행으로의 변신을 모색한 것은 지금까지의 원칙과 전통을 고수하면서 계속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금융 산업지형에서 거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라는 중대한 기로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정하고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해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5)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라는 신자유주의 흐름은 스위스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다수의 대기업들이 기업 내 업무를 외부로 넘기는 아웃소싱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어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회사가 되거나 협력사로 편입하게 된 것을 말함

2.3.2 프랑스, 낭트화폐

낭트화폐SoNantes는 현재 프랑스 낭트 시³⁶⁾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 중인 지역화폐다. 2012년 초 시 정부의 주도로 민관 협치 조직을 꾸려 프로젝트A Currency in Nantes를 시작, 약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 5월에 출범했다. 지역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³⁷⁾

낭트화폐는 스위스 비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들이 신용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용화폐다. 기본적으로 비어의 운영원리를 따르고 있으나, 기업 간 신용거래(B2B) 뿐만 아니라 개인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 방식을 함께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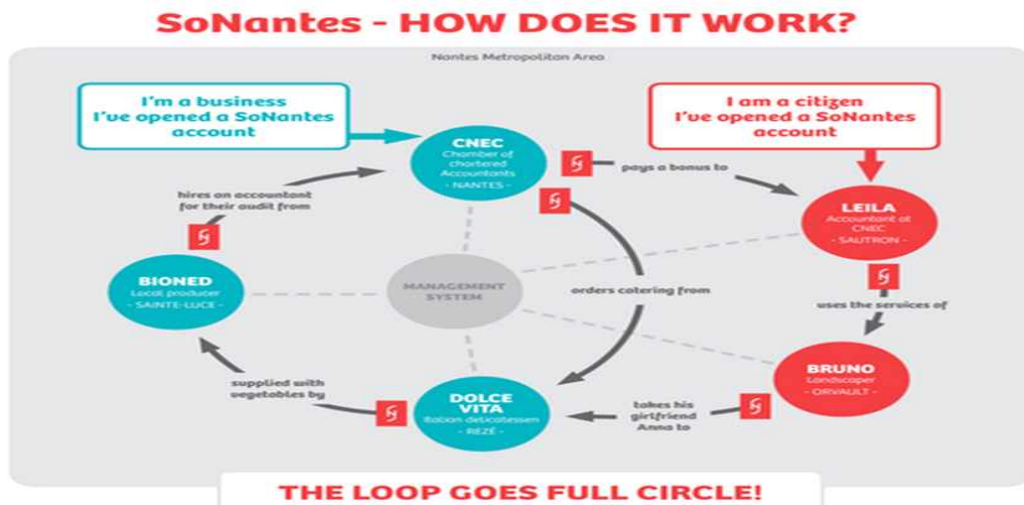


그림 4. 낭트화폐 작동구조 (sonantes.fr)

위 그림 안쪽 파란 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업 간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바깥쪽 빨간 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인이 화폐 순환구조에 참여하는 영역이다. 기업 간 거래에는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비어의 작동원리와 동일하며 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는 법정화폐(=유로화)와 낭트화폐를 1:1로 교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³⁹⁾

36) 프랑스 남서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페이 드 라루아르(Pays de la Loire)주의 수도이며 거주 인구는 30만 명 내외임

37) 현 프랑스 국무총리인 장 마르크 에로(Jean Marc Ayrault)가 낭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사업이 시작됨

38) 기업 간 거래는 다자 간 신용교환 방식을, 기업과 개인 거래는 법정화폐 교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39) 개인이 낭트화폐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임금의 일부가 이 화폐로 받거나 지정 금융기관(신협)에서 유로화와 교환하는 방법이 있음

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시스템 운영의 중추는 시市에 존재하는 작은 기업들이다. 현재 낭트 시에는 약 2만 6천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며 이들 가운데 시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회연대경제⁴⁰⁾ 조직들이다.

시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고용 창출, 복지서비스 전달, 자원순환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1년부터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이 영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⁴¹⁾

그림 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회색 원)이 시스템 운영의 핵심기구인 청산소로, 낭트화폐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은 시립 낭트은행⁴²⁾이다. 낭트은행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전자제품이나 보석 등 일정한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착한 전당포Pawnshop라 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은행은 빚 탕감이나 대출경감 등을 통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비영리 기구로, 고리대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전당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市가 추구하는 서민금융 정책을 실천하는 공설公設, 공영公營조직이라고 보면 된다.⁴³⁾ 현재 낭트 시는 낭트화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청산소를 은행의 자회사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낭트화폐는 지폐는 사용치 않고 오직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유통되는 디지털 통화다. 지급결제 수단은 총 3가지로, ①온라인 ②신용카드 ③모바일 기기를 통한 지급결제 방법을 채택, 활용하고 있다. 거래 표준 및 기준 통화는 유로화이며, 비어 등 유럽의 다른 보완화폐들과 마찬가지로 「1유로=1낭트화폐」의 등가等價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①온라인 결제는 통상적인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회원 간 대금결제를 하려면 먼저 낭트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업 회원은 낭트화폐 기반의 자금이체를, 개인 회원은 유로화 계좌와 낭트화폐 계좌 간 이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개인이 낭트화폐를 사용하려면 낭트은행에 개설된 별도 계좌에 잔고(=낭트화폐)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40) 사회적경제의 프랑스식 표현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기업체의 약 9%가 사회연대 조직들이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9%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1) 지방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주로 개입하는 방식은 지분투자를 통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임

42) 정식 이름은 'Credit Municipal de Nantes'임. 1955년에 사회복지공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984년부터 낭트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임.

43) 낭트은행의 회장은 시장이, 대표는 부시장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조직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결제수단으로 ②신용카드를 적용한 이유는 낭트화폐의 핵심 거래당사자들이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사업상 거래를 위한 자금 인출이 현금보다는 대부분 카드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낭트화폐는 현재 마스터카드Master Card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다.

③모바일 기기를 통한 거래는 문자 메시지SMS를 활용한 지급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거래 상대방 고유번호와 결제금액을 문자로 찍어 은행 호스트Host로 보내면 몇 초 안에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식이다.⁴⁴⁾ 따로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구형 폰Phone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유럽의 많은 지역화폐들이 채택하고 있는 결제수단이다.

낭트화폐는 비어 모델을 원형으로 삼아 한 단계 진화된 방식으로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신용화폐다. 이제 막 출범한 신생화폐가 향후 어떤 행보를 걷게 될 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낭트화폐가 이 보고서의 주제인 사회경제조직 간 신용교환 시스템의 역할모델 중 하나이므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위험 및 장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도록 하자.

먼저 「어떻게 회원을 조직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법정화폐를 더 선호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낭트화폐가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편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록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역 상인들은 가입을 꺼려할 것이다.

다음으로 「회원들에게 여신(=신용대출)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어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운영주체가 기본 신용거래 이외에 추가적인 여신을 발생시켜 유동성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신용교환 구조에서 이를 실현시키려면 각 회원들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낭트화폐는 아직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격적인 신용확대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는 두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하나는 신용부족으로 회원들이 낭트화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시스템을 이탈할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과잉으로 일부 회원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될 위험이다.⁴⁵⁾

44) 네덜란드의 비영리 온라인 뱅킹시스템 개발회사 스트로(STRO)가 개발한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소스'를 제공해주고 있음

45) 두 가지 모두 통계적 검증을 통한 신용평가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전자는 신용한도를 높여주어야 할 회원에게 균등한 신용을 제공해줌으로써, 후자는 신용한도를 높여주지 말아야 할 회원에게 한도 증액을 해줌으로써 발생하게 됨. 낭트화폐의 운영주체를 오랜(200년 이상) 대부경험을 가진 낭트은행에게 맡긴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정됨

끝으로 「운영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스위스 비어는 신용대출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통해 시스템 운영비를 충당했다.⁴⁶⁾ 하지만 당장 신용창조 정책을 적용하기 힘든 대안화폐의 경우, 다른 수익모델을 강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 재정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거나 회원들에게 가입비나 회비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냅트화폐는 수수료를 주요한 수익원천으로 삼고 있다. 회원들의 경우, 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수준의 거래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냅트화폐를 사용코자 하는 시민들에게 환전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꼭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는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이탈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어는 전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파도 앞에 무릎을 꿇고 상업은행으로 「전향」하고 말았지만, 새롭게 출범한 냅트화폐가 비어가 걸어온 길을 등대삼아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결국 냅트화폐의 성공여부는 냅트 시와 은행 그리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시민들이 이 화폐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46) 비어의 경우, 대출이자가 늘어날수록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공통경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비용구조가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용자신청이 많았음

제3장 사업 환경 분석

3.1 서울시 사회경제조직 현황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사회경제 조직들이 법정화폐의 도움 없이도 자체 신용을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경제 조직들의 현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은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제 사회경제 조직들을 업종별로 구분해 나타낸 것이다.⁴⁷⁾ 종사하는 업무분야를 모두 18개로 구분해본 결과, 총 2,503개의 사회경제 조직들 가운데 가장 많이 조직이 일하고 있는 곳은 「도·소매」 분야(2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곳은 「신재생에너지」 분야(0.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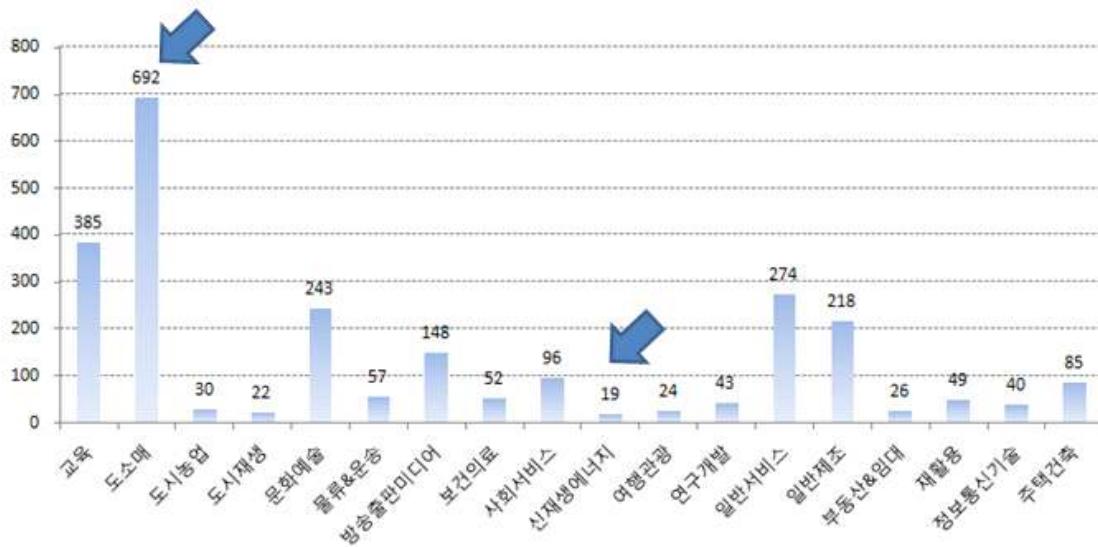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업종별 현황

도·소매 외 교육(15.3%), 일반서비스(10.9%), 문화예술(9.7%), 일반제조(8.7%) 분야에서 일하는 조직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도시재생(0.8%), 여행관광(0.9%), 부동산임대(1.0%) 분야에 종사하는 조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방송출판미디어(148개)가 5.9%, 사회서비스(96개) 분야가 3.8%, 주택건축(85개)이 3.3%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47) 2015.5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421개, 협동조합 2,115개, 마을기업 115개, 자활기업 188개, 기타(공유기업) 45개 등 총 2,884개인 것으로 확인됨. 이 표는 이들 가운데 업종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곳(공유기업)과 포함 시 통계상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곳(생협, 신협, 자활기업)을 제외한 총 2,503개의 조직을 재분류한 것임

도·소매, 교육, 일반서비스의 상위 3개 업종을 더할 경우, 나머지 15개 업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53.9%)를 나타냈다. 또 평균값(139개)보다 많은 업종은 6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개 업종은 평균값보다 낮거나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었고 이들 중 평균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종이 모두 10개였다. 결과적으로, 업종별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고(9.2%) 강북구가 가장 적은 것(1.1%)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가 상위를 차지했고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동작구가 하위 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또 평균값(100.1개) 이상의 사회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구가 11개, 평균값 아래가 14개로 평균 이하가 이 상보다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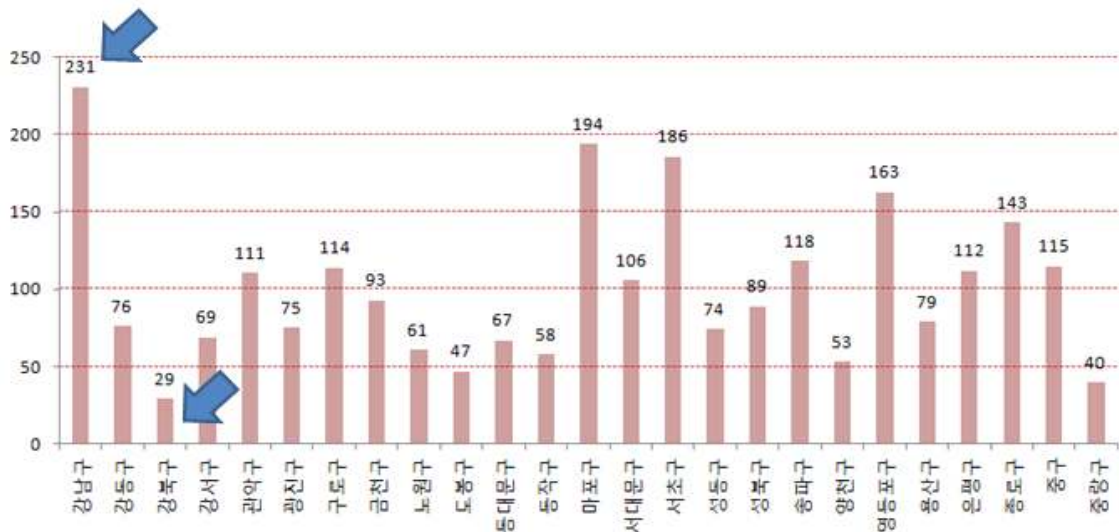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자치구별 현황

권역별로 나누어볼 경우 ①서남권이 661개(26.4%) ②서북권이 412개(16.4%) ③도심권이 337개(13.4%) ④동남권이 611개(24.4%) ⑤동북권이 482개(19.2%)로,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과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많고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과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동북권(도봉, 강북, 노원, 성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은 평균 수준이었다.⁴⁸⁾

등록된 숫자에 불과하긴 하나, 동일 권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지역별 분포 역시 일정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서남권의 경우, 동작구와 영등포구가 ②서북권의 경우,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③도심권의 경우, 종로구와 용산구가 ④동남권의 경우, 강남구와 강동구가 ⑤동북권의 경우,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큰 차이를 보였다.

48) 서울시 전역을 서남, 서북, 도심, 동남, 동북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순 합산한 숫자로 통계상 큰 의미는 없음. 정확한 (지역별) 점유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비례 숫자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3.2 적용 타당성 분석

비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폐쇄된 고리Loop 안에서 신용화폐가 정상적으로 순환하려면 수요·공급 간 혹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거래를 하고 싶어도 시스템 내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공급업체가 없거나 판매자만 많고 구매자가 없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화폐 순환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화폐체제의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❶자원순환 및 ❷통화 공간 측면에서 사회경제 조직들 간에 신용화폐가 실제로 잘 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❶자원순환이란 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교환 가능성을 말하며 ❷통화 공간이란 신용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물리적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뜻한다.

3.2.1 자원순환 측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서울시에는 약 2천5백 개 이상의 사회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중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시에 등록된 조직들 모두가 설립 취지에 맞추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개별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자원들을 신용화폐를 통해 서로 교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도록 하자.

아래 그림은 직접교환을 한다는 가정 하에, 분야(=업종)별 생산 자원들의 호환互換 가능성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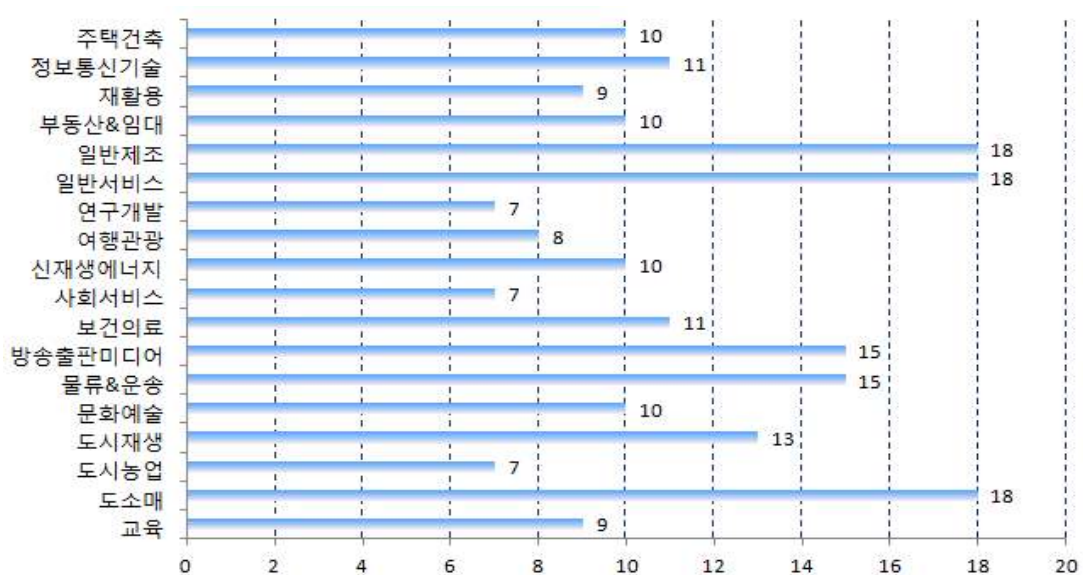


그림 7. 사회경제 조직 업종별 자원호환 대상 수

그림 상의 숫자는 생산된 자원을 맞교환할 수 있는 대상 업종 수No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는 도·소매를 비롯해 9개의 타 업종과 교환할 수 있고 보건의료는 11개의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축은 10개 분야와 교류가 가능하다. 도·소매, 일반서비스, 일반제조 분야는 동종 업종을 포함, 사회경제 전 영역과 교환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호환성이 가장 높다.

전체 18개 분야 가운데 4개(도시농업, 사회서비스, 여행관광, 연구개발)를 제외한 14개 업종이 과반(9곳) 이상의 타 업종과 자신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교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각각의 업종에 달린 숫자가 크면 클수록 교류(=교환) 대상과 폭은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용화폐를 통한 내부자원의 교류는 활성화 될 것이다.

만일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경제 조직들(그림 5)이 모두 이 교환과정에 참여한다고 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래 그림은 각 업종별 교환 가능업종 수(그림 7)를 가중치Weight로 잡고 시 사회경제 조직들의 분야별 신용교환 활성화 정도를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이다.⁴⁹⁾ 달리 말하면, 신용교환 시장의 업종별 점유율Market Share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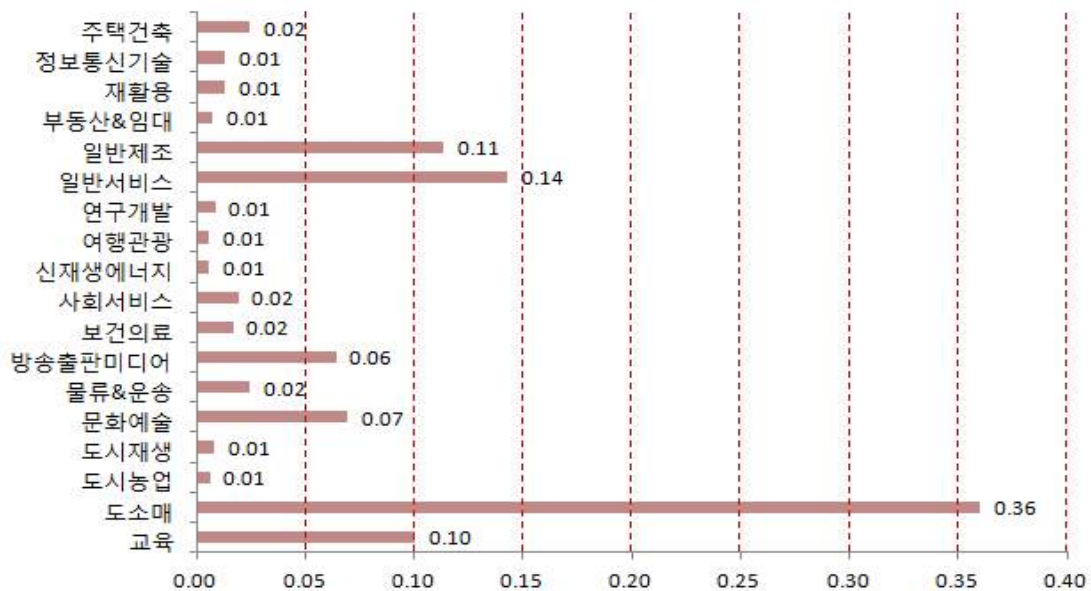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업종별 자원호환성 지표

49) 지수산출 공식은 (개별 업종별 비율×개별 가중치)÷(전체 업종별 비율×가중치 합계)임. 업종별 가중치는 전 업종과의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1”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했으며, 거래 참여 정도는 시 사회경제 조직들의 수(비율)을 기초로 산정했음. 지수가 클수록 거래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지수는 곧 거래 점유율이기도 함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도·소매(0.36), 일반서비스(0.14), 일반제조(0.11), 교육(0.10)순이다. 이는 전체 신용거래의 절반이 도·소매와 일반서비스 업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일반제조와 교육 분야까지 합할 경우, 총 거래의 약 70%가 이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나머지 14개 업종의 거래 합계가 30%를 이루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자원 호환성 측면에서,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의 내부 구성분포가 상당히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업종들의 자원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시작될 경우, 순환장애에 빠질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만일 호환성이 낮은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가 말해주듯,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경제 조직들 다수가 내부 신용거래가 참여한다고 할 경우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호환지수 상위에 위치해 있는 업종들 중 다수가 일반 협동조합임을 감안할 때, 신용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경제 조직들이 많이 생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석내용은 단지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일 뿐, 이 결과가 시 사회경제 조직들 간 신용화폐 교환 체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❶현재 등록된 조직들이 모두 활동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❷시 사회경제 조직들의 절대 수(2,503개)가 풍성한 교류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⁵⁰⁾

3.2.2 통화 공간 측면

다음으로, 신용화폐가 잘 순환되려면 어느 정도의 물리적 범위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신용화폐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공간적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성립 후 교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화폐 순환에 문제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유통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문제는 「무리 없이 화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공간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이다. 먼저 자치구별 현황을 살펴보자. 앞서(그림 6) 살펴본 것처럼, 시 사회경제 조직들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00개 이하의 자치구가 14곳, 100~200개 사이의 자치구가 10곳, 200개 이상이 1곳(강남구)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조직 수가 채 100개가 안 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50) 이는 비어와 냇트화폐의 참여자 수와 비교해서 내린 주관적 판단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업종별 사회경제 조직들을 자치구 단위로 다시 세분한 것이다. 자치구 간은 물론, 개별 자치구 내에서도 사회경제 조직들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순환체계 형성을 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 공간을 자치구별로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많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업종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교육	38	14	7	6	15	19	18	15	10	5	6	10	29
도소매	67	19	6	27	41	21	37	26	15	10	20	19	56
도시농업	2	3	1		5		1	1		1			
도시재생	1	1			4		1	1	2		1		1
문화예술	16	7	2	4	8	6	4	5	4	2	9	2	32
물류&운송	1	3	2	6	4	2	1	2		3	1		2
방송출판미디어	19	2		2	4	2	4	9	2	1	2	1	24
보건의료	6	2	1		2	3	6		3		1	5	5
사회서비스	4	1	2	2	2	4	5	5	2	5	1	2	5
신재생에너지	3	3					1	1	1	2	1	2	1
여행관광	2	1			1			1	1			1	
연구개발	9	1		2	2			2			2	1	2
일반서비스	35	6	3	11	5	6	16	2	4	6	8	8	10
일반제조	8	7	2	4	9	9	8	11	6	9	10	3	15
부동산&임대	6	1			1		1	1	1				
재활용	1	3	2	3	2	2		1	2	2	2	2	3
정보통신기술	6			1	2	1	6	5	3		1		3
주택건축	7	2	1	1	4		5	5	5	1	2	2	6
총합계	231	76	29	69	111	75	114	93	61	47	67	58	194

업종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합계
교육	17	40	7	20	13	6	21	5	19	21	19	5	385
도소매	31	46	18	20	43	16	23	26	22	41	28	14	692
도시농업	2	2			4	2	2		3	1			30
도시재생	1	1	1	1				2	2	2			22
문화예술	13	24	5	12	11	5	14	8	5	29	15	1	243
물류&운송	3	4	1	1	6	1	6			1	7		57
방송출판미디어	3	9	7	4	4	2	9	7	8	9	13	1	148
보건의료	1	3	3	1	1	1	2		5	1			52
사회서비스	6	6	1	6	3	1	12	4	6	5	4	2	96
신재생에너지					1				1	1	1		19
여행관광		1	1	1	1		2	2	1	4	3	1	24
연구개발	3	7		2		2	2	2	2	1	1		43
일반서비스	16	18	5	9	12	6	45	9	8	8	13	5	274
일반제조	3	10	18	7	7	6	10	10	17	11	9	9	218
부동산&임대	2	2	2		2		1	2	2	1		1	26
재활용		5	2	2	2	1	3	1	4	2	1	1	49
정보통신기술		4	1		2	1	4						40
주택건축	5	4	2	3	6	3	7	1	7	5	1		85
총합계	106	186	74	89	118	53	163	79	112	143	115	40	2503

표 1.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자치구별, 업종별 현황

조직 수가 가장 적은 강북구(29개)의 경우, 총 18개 업종 중 7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경제 조직이 없다. 마찬가지로 중랑구(40개)도 8개의 업종이 공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조직 수가 많은 자치구들 역시 중간 중간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수가 많건 적건, 전 업종에 걸쳐 사회경제 조직이 모두 존재하는 곳은 강남구(231개)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자치구별로 물리적 경계를 세워 교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자체적인 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측면에서도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성과Outcome가 낮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역별로 묶는 것은 어떨까.

아래 표는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을 업종 및 권역별로 구분해놓은 것이다. 권역별은 물론이고 동일 권역 안에서도 사회경제 조직 수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자치구 단위로 나눌 때보다 사정은 다소 나아졌지만, 신용화폐가 원활히 돌기엔 여전히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업종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합계
교육	91	105	45	65	79	385
도소매	189	175	95	109	124	692
도시농업	11	11	1	5	2	30
도시재생	6	3	4	4	5	22
문화예술	42	58	52	50	41	243
물류&운송	20	14	8	5	10	57
방송출판미디어	31	34	29	35	19	148
보건의료	16	12	1	11	12	52
사회서비스	29	14	13	17	23	96
신재생에너지	4	7	2	2	4	19
여행관광	5	5	9	1	4	24
연구개발	11	17	4	7	4	43
일반서비스	93	71	30	34	46	274
일반제조	51	32	30	35	70	218
부동산&임대	4	11	3	4	4	26
재활용	12	11	4	7	15	49
정보통신기술	19	12		3	6	40
주택건축	27	19	7	18	14	85
총합계	661	611	337	412	482	2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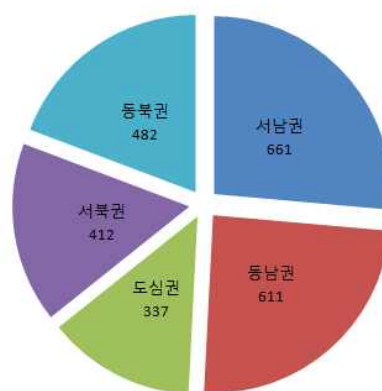


표 2.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권역별, 업종별 현황

조직의 절대 숫자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실제 화폐 순환에 참여하게 될 사회경제 조직 수는 등록된 곳의 약 「25%」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가정에 기초해 화폐거래에 임할 조직 수를 다시 산정해볼 경우, 권역별 사회경제 조직들 수는 아래(표 3)와 같이 하락하게 된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권역별 조직 수는 기존 「자치구」 수준으로 떨어졌다.⁵¹⁾ 앞서 지적했듯이, 화폐 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자치구들을 지역 생활권역으로 묶는다 해도 사회경제 조직간 내부거래를 통한 신용화폐 순환의 적정 규모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⁵²⁾

업종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합계
교육	22.8	26.3	11.3	16.3	19.8	96.3
도소매	47.3	43.8	23.8	27.3	31.0	173.0
도시농업	2.8	2.8	0.3	1.3	0.5	7.5
도시재생	1.5	0.8	1.0	1.0	1.3	5.5
문화예술	10.5	14.5	13.0	12.5	10.3	60.8
물류&운송	5.0	3.5	2.0	1.3	2.5	14.3
방송출판미디어	7.8	8.5	7.3	8.8	4.8	37.0
보건의료	4.0	3.0	0.3	2.8	3.0	13.0
사회서비스	7.3	3.5	3.3	4.3	5.8	24.0
신재생에너지	1.0	1.8	0.5	0.5	1.0	4.8
여행관광	1.3	1.3	2.3	0.3	1.0	6.0
연구개발	2.8	4.3	1.0	1.8	1.0	10.8
일반서비스	23.3	17.8	7.5	8.5	11.5	68.5
일반제조	12.8	8.0	7.5	8.8	17.5	54.5
부동산&임대	1.0	2.8	0.8	1.0	1.0	6.5
재활용	3.0	2.8	1.0	1.8	3.8	12.3
정보통신기술	4.8	3.0	0.0	0.8	1.5	10.0
주택건축	6.8	4.8	1.8	4.5	3.5	21.3
총합계	165.3	152.8	84.3	103.0	120.5	6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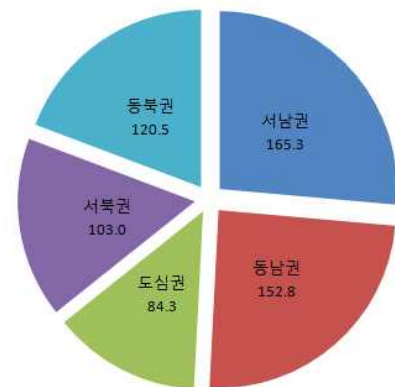


표 3. 서울시 권역별 신용거래 참여 사회경제조직 예상 현황

이상의 내용에 기초해볼 때, 서울시 전역을 통화 공간으로 삼고 화폐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일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①자원순환 측면에서 호환지수가 높은 업종들이 많아 작동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②통화 공간은 자치구나 권역별 묶음 보다는 서울시 전체를 물리적 범위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51) 현재 등록된 사회경제 조직의 대다수가 신생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제품 및 기술력을 갖춘 곳은 절반 수준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가운데 다시 절반 정도가 실제 거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조직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참여율은 더 낮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52) 하지만 향후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 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 권역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음

3.3 법률 의제

서울시 신용화폐 발행 • 유통과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화폐 발행 및 유통 시,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내용
- ② 화폐 발행주체(=지원센터)의 법적 자격 기준
- ③ 신용대출에 따른 반대급부(=이자) 수취의 법적 타당성 검토
- ④ 화폐 거래에 따른 세금(=부가가치세 등) 납부 관련 기준
- ⑤ 기타 본 사업 진행과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령 검토

①서울시 신용화폐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화폐 사용을 희망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가상의 화폐이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전자거래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해주는 도구라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⁵³⁾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⁵⁴⁾

동 법률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①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②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서울시 신용화폐의 경우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이긴 하나 이 돈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의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②서울시 신용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이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관은 동 법률⁵⁵⁾에 의거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법적 형태 : 상법 상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최소 자본금(또는 출자총액) : 20억 원
- 인적 요건 : 전산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이상 확보
- 물적 요건 :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전산실 보안장치 등

따라서 서울시 신용화폐를 사회경제 조직들뿐만 아니라(B2B)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구조(B2C)로 설계할 경우, 위에 열거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 및 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 참여구조란 법정화폐를 신용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행주체가 담보해야 할 법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3)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5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55)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30조(자본금), 31조(허가와 등록의 요건)를 말함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경제 조직들 간 거래 방식을 적용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다. 이 경우, 사회경제 기업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매개체로서의 신용화폐는 이용자가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다시 말해 법정화폐와의 교환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동 법률 상 등록 면제 대상 조건⁵⁶⁾만 갖춘다면,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동 법률이 정한 전자금융업자 자격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에 대해 특정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공제 포함)에 가입하는 방법⁵⁷⁾을 통해 화폐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폐 발행주체가 등록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따르게 된다.⁵⁸⁾

③ 화폐발행 주체가 회원들에게 신용을 제공해준 대가로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것은 금전(=법정화폐) 대부에 따른 이자 수취와는 성격이 다르다.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신용화폐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 즉 이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이 수수료를 법정화폐로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⁵⁹⁾

다만 이 수수료 수취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신용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회원 가입 시점에 관련 조항을 약관에 포함,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회원들의 동의를 구했다하더라도 수수료 수취 등 관련 조항들이 이용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④ 어떤 화폐를 사용하건, 교환수단이 신용화폐이거나 법정화폐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에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납세 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폐를 사용했는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 신용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될 세금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만일 교환수단으로 종이를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용화폐 거래가 탈루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세금은 법정화폐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화폐 발행처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6)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제3항 제1호(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를 말함

5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5조(허가 또는 등록 면제 등) 제⑥항 참조

58)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⑧항을 말함

59) 화폐발행 주체가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사용하는 가맹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도 같은 개념임

⑤ 신용화폐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검토가 필요한 법률 의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에 대한 해석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전자지급수단 및 화폐 운영주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를 기초로 할 때, 서울시 신용화폐가 가상의 지급수단이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 법률의 규율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화폐를 발행·유통하려는 목적이 사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현행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4장 시스템 구성 및 운영

4.1 작동원리

(가칭)서울 사회경제 신용화폐⁶⁰⁾(이하 SECC)는 서울시에 있는 사회경제 조직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디지털화폐다. SECC 사용을 희망하는 조직은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화폐 운영센터(이하 센터)⁶¹⁾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SECC는 가입회원들 상호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법정화폐 대신 사용하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지불수단이다.

회원들은 할당된 신용한도⁶²⁾ 내에서 다른 회원들과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때 화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모든 회원은 고유의 신용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는 이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른 회원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 계좌는 음(-)의 상태, 반대로 자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양(+)의 상태가 되며 궁극적으로 모든 거래는 청산Settlement⁶³⁾을 목표로 한다.

아래 그림은 가장 단순한 신용화폐 거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갑은 을과의 교환을 통해 30의 신용을 지불했고, 을은 병과의 거래에서 다시 병은 정과의 거래에서 각각 30의 신용을 지불했으며 최종적으로 갑은 정과의 거래를 통해 30의 신용을 되찾았으므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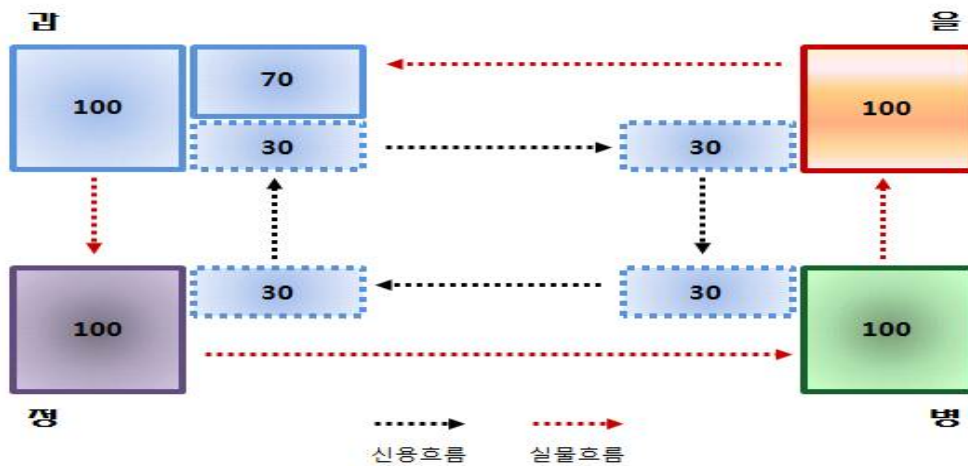


그림 9. 신용화폐, 실물(재화 및 서비스) 간 정상 교환 흐름

60) 정식 명칭은 서울 사회경제 상호신용화폐(Seoul Social Economy Mutual Credit Currency)임. 여기서는 간단히 약자(Social Economy Credit Currency)로 표현

61)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기구로, 정식 명칭은 서울 사회경제 상호신용화폐 운영센터임

62) 신용은 모든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기본신용과 신용평가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는 추가신용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이야기는 후술할 예정임

63) 회원 간 채권 채무가 서로 상계되어 모든 계좌가 영(ZERO)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함

이론적으로 신용(화폐)의 이동방향과 실물(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방향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 수와 상관없이 이 흐름은 항상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거래가 이 이론처럼 늘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신용 과잉(또는 부족) 현상으로 인해 화폐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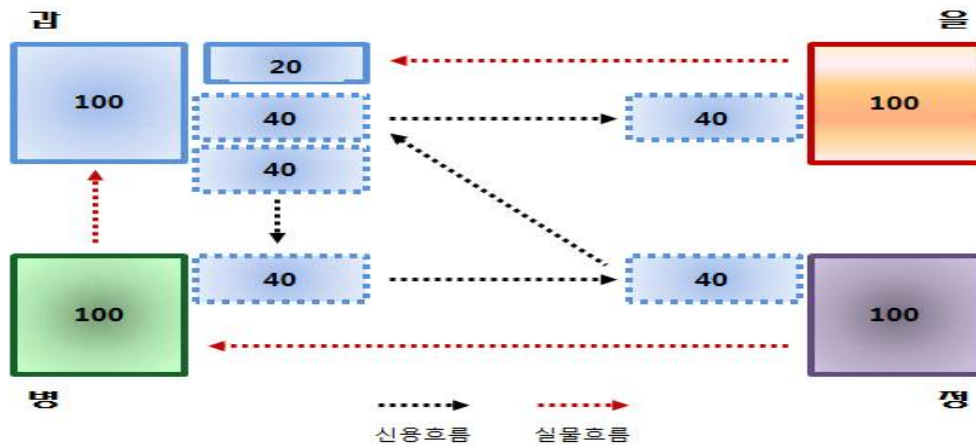


그림 10. 신용화폐, 실물(재화 및 서비스) 간 비정상 교환 흐름

갑은 을과의 교환을 통해 40의 신용을 지불했고, 병과의 거래에서도 40의 신용을 소진했다. 병은 정과의 거래에서 40의 신용을 지불했고, 정은 최종적으로 갑에게 40의 신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했으나, 갑은 신용부족으로 정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게 되었다. 소지하고 있던 신용을 다 써버려 상대방에게 지불한 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신용거래에서는 ‘충알’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센터가 화폐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센터는 SECC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구로 화폐 발행 및 유통, 운영규칙의 제정, 회원 관리 등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⁶⁴⁾

SECC는 담보나 증거금이 필요 없는 순수 신용화폐로, 신용 남용으로 인한 시스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규정이 엄격해야 하며 회원들이 이 거래지침Standard Exchange Manual을 충실히 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일 이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출 등 강력한 제재가 따라주어야 한다.

64) 운영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할 예정임

거래지침이란 ❶채권(+)이건 채무(-)건 청산되지 않은 신용자산을 장기간 보유 또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❷지급 결제 시, 신용화폐를 통한 최소 결제비율⁶⁵⁾을 지켜야 하고 ❸신용화폐를 다른 회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⁶⁶⁾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제정한 내부규약을 말한다. 회원들은 가입 전, 이 지침 준수에 대한 윤리서약을 하게 된다.

거래는 센터 누리집Homepage 내에 설치된 공개 거래소(=장터)를 통해 온라인이나 휴대용 통신기기 앱App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원사들은 자신들이 생산·판매·교환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일정한 규격Form에 맞추어 게시해야 하며 SECC의 모든 회원들은 검색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제품을 항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희망하는 회원은 상대방에게 주문을 넣고 협상을 통해 결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신용한도가 충분하고 판매자가 동의할 경우 구매금액의 전부를 SECC로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의무 한도(비어, 30%) 내에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구매자는 이 조건을 수용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된다.

회원들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판매자건 구매자건 상관없이), SECC를 통한 대금 결제상의 의무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한도 이상으로 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하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결제 기준에 강제성을 두는 이유는 SECC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회원들이 임의대로 결제비율을 정할 경우, 신용화폐를 통한 거래는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무 결제비율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을 경우, 거래과정이 경직될 수 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은 적고 구매하고 싶은 재화나 서비스가 많을 경우, 한쪽으로 너무 많은 신용을 주게 된다면 다른 쪽 거래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상황이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변화 시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거래 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내역들은 모두 공개된다. 내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회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역 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⁶⁷⁾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간접적인 제품 홍보 효과를 창출한다.

65) 스위스 비어의 경우, 총 결제금액 중 최소 30%를 비어화폐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음

66) 일부 레츠 모델에서도 회원들 간에 서로 신용을 주고받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나, 사무국이 이 거래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지는 않음

67)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함

만일 누군가가 나쁜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다른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게 된다. 반면, 두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특정 회사, 특정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포장」이 아닌 실거래를 통해 회원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SECC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경제 주체들 간의 내부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즉 소비자는 참여할 수 없다. 생산자가 아니므로 교환할 재화와 서비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신용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경제 주체들의 고객들인 지역주민, 공공기관, 협동조합 조합원 등 소비자군을 이 시스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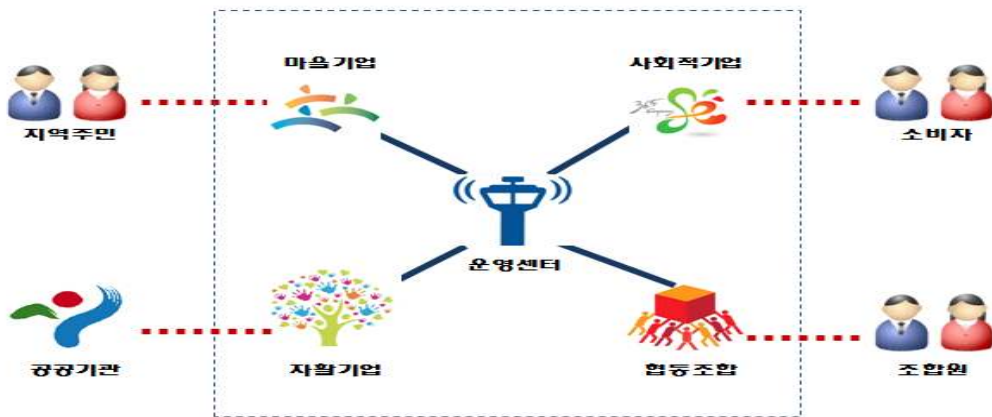


그림 11. 사회경제 조직 간(B2B) 신용화폐 시스템 구성도

직접 신용을 창조할 수는 없으나 신용화폐를 구매Purchase해서 쓴다면 가능하다. 법정 화폐와 SECC를 교환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하려면 무현금 신용거래 방식이 아닌 대환화폐⁶⁸⁾ 방식의 교환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신용교환을 토대로 한 조직 간 거래방식(B2B)과 화폐를 취득한 일반 소비자들이 교환에 참여하는 방식(B2C)을 통합Integration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 간 내부거래를 위해 만든 신용화폐를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용汎用화폐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개별 조직들은 신용을 기초로 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상호결제를 하면 되고 소비자는 바로 그 신용(화폐)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어 함께 교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❶사용처가 충분하고 ❷화폐단위와 ❸결제수단만 동일하다면 가능한 일이다.

68) 화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담보물(금, 법화)을 설정한 후 발행되는 화폐를 말함

이 방식을 적용한 모델이 바로 냅트화폐다. 냅트는 2만 6천개 이상의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간 신용교환을 전제로 만들어진 화폐 시스템으로 ①이들이 곧 소비자들이 취득한 돈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맹점)이고 ②유로화와 냅트의 화폐단위가 동일하며 ③지급결제 방식으로 전자결제 수단만을 적용하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생산자 및 소비자 집단 모두를 염두하고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SECC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앞서 언급한 기본전제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전제란 ①사용처가 충분하고 ②화폐단위와 ③결제수단을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②화폐단위와 ③결제수단을 단일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①소비자들이 이 화폐를 쓸 수 있는 사용처 즉 가맹점을 확보하는 일이다.

냅트화폐가 이 모델을 설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내의 많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을 화폐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은 다르다. 현재 대략 2천 6백 개 남짓한 사회경제 조직이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환전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만큼 관심을 끌만한 대상이 많지 않다.



그림 12. 신용화폐 기반 통합시스템 구성 및 화폐 흐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굳이 이 화폐를 환전할 이유가 없다. 지금 쓰고 있는 법정화폐를 가지고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모델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통합 모델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앞으로 얼마나 느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⁹⁾

69) 이 글에서는 (B2B+B2C) 통합 시스템은 당장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회경제 조직간(B2B)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4.2 운영주체

일반적으로 대안화폐 시스템은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세 개의 축이란 ①화폐를 만드는 발행인Issuer ②화폐 유통을 매개하는 거점인 가맹점 Franchiser 그리고 ③실제 이 화폐를 쓰는 사용자Users를 말한다. SECC의 경우, 센터가 ①발행인이며 ②가맹점과 ③사용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발행인과 사용자만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어떤 종류의 모델을 만들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대안화폐)을 만드는 일에도 돈(법정화폐)이 든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SECC 시스템의 실질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센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4.2.1 역할 및 기능

SECC 시스템 운영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센터의 역할은 ①통화 관리 ②시행규칙 제정 ③사용자(=회원) 관리 ④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경제 조직 간 신용화폐 모델(그림 11)을 전제로 할 때, SECC는 단지 계좌 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⁷⁰⁾이기 때문에 센터의 법적 자격요건이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⁷¹⁾

①화폐 발행 및 유통, 흐름 점검 등의 통화관리는 센터의 고유 업무이며 핵심 기능이다. 화폐를 만들고 시스템 안에서 화폐가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화폐를 발행, 유통하는 기능 ㉡화폐 흐름을 점검, 관리하는 기능 ㉢돈이 잘 흐르도록 통화정책을 수립, 적용하는 기능 등이 존재한다.

②규칙 제정이란, 거래 시 회원들이 필히 준수해야 할 지침⁷²⁾을 만들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서에는 ㉣신용화폐의 정의와 목적 ㉤회원 자격 획득 및 상실 요건 ㉥회원의 권리와 의무 ㉦신용거래 방법 및 프로세스 ㉧거래 및 이용수수료 규정 ㉨기타 신용거래에 필요한 제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0)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며(유럽 중앙은행)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P2P 기반의 전자서명인 비트코인(Bitcoin)이 있음

71)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되며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따라주어야 함

72) 일명 「표준거래 지침서(Standard Exchange Manual)」를 말함

③회원 관리란, 가입・탈퇴와 같은 기본 행정업무를 비롯해 회원들의 불만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SECC는 강제력이 수반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변동(외부적 요인)이나 거래 부진에 따른 흥미 상실(내부적 요인) 등에 의해 언제든지 회원 이탈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에 대한 밀착관리가 필요하다.

④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란, 지급결제(=교환)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SECC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만일 전자결제수단 도입 등으로 인해 지급결제 및 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협력기관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2.2 조직 구성

센터 조직은 책임자인 센터장(長)을 중심으로 ①정책 기획 ②회원 관리 ③시스템 운영 ④경영지원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업무영역은 전문화된 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기획과 회원 관리를 하나로 시스템 운영과 경영지원 업무를 다른 하나로 묶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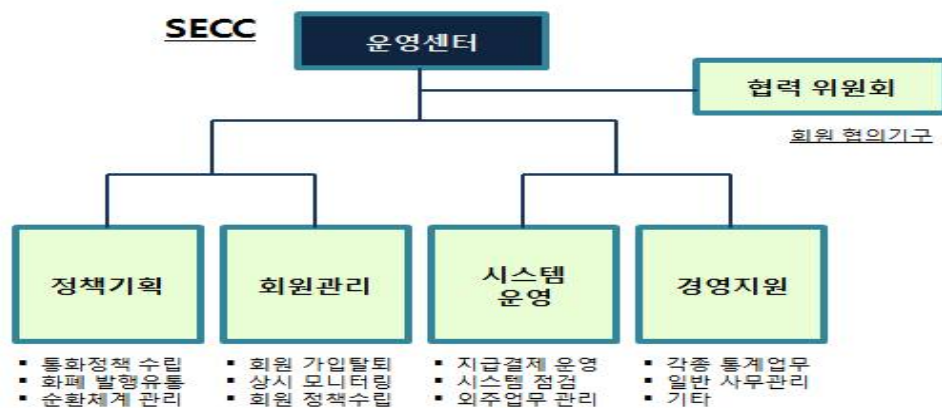


그림 13. 운영센터 조직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 규모는 사업 규모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이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이 보임補任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 기능 자체를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⁷³⁾

73) 사업경험 축적이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센터 운영을 외부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⑤협력 위원회는 회원과 센터 간 정책 및 업무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상설 기구로, 회원 대표와 센터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SECC 운영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협의 테이블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공동 협력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⁷⁴⁾

4.2.3 수익 모델

원론적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다. 편익과 비용의 함수 측면에서 보자면, SECC를 통해 편익을 누린 것에 비례比例해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 비용을 계산해 징구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모델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당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들어간 총비용 수준으로 비용 징구계획을 세워 사업을 집행한 후,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걸려 잉여가 발생하면 내년 사업을 위해 적립해두거나 회원들에게 되돌려주고 반대로 결손이 생기면 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일시 후원금을 건거나 익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비용을 좀 더 많이 징구하는 식이다.

가장 보편적인 비용 충당방법은 수수료Fee를 받는 것이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 수준의 ①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를 징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거래건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입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입확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수수료 징수는 정액이나 정률 또는 정액과 정률을 혼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정액이나 정률보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신규 가입한 회원들에게 받는 ②가입비Entry Fee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징구하는 ③정기 회비Membership Fee도 수수료의 일종이다. ②가입비는 정액으로 받는 일회성 비용으로, 기부 형식으로 받아 사용하거나 탈퇴 시 반환해줄 수도 한다. ③정기 회비는 연회비 형식으로 정액납부토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징수한 돈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또 다른 수익원천으로 이자Interests 수입이 있다. 이자수입이란 센터가 회원들에게 신용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한다. 신용한도(=기본신용)가 모자라 거래에 제약을 느끼는 회원에게 대출이라는 형태로 신용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일반적인 은행의 신용창조Credit Creation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작동 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74)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공공(서울시)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민관 협력 테이블의 성격을 띠게 됨

신용교환 체계에서의 대출은 통상적인 은행대출과는 다르다. 상업은행들이 제공하는 여신은 대출 시 담보를 요구하지만, SECC의 신용대출은 담보가 필요 없다. 또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금리 인하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SECC 안에서의 대출은 상호거래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회원이 추가 신용을 희망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의 누군가로부터 구매할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는 뜻이고, 빌린 신용을 다시 갚으려면 다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다.⁷⁵⁾ 즉, 이 회원에게 신용을 추가로 제공해주는 것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내부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훌륭한 촉진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아래(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자부담비율과 경비부담비율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센터의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거래수수료 등 회원이 부담해야 할 경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회원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자부담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경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다. SECC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은 은행의 현금대출보다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경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보다 높으면 대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금리 대비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탄력적인 이자율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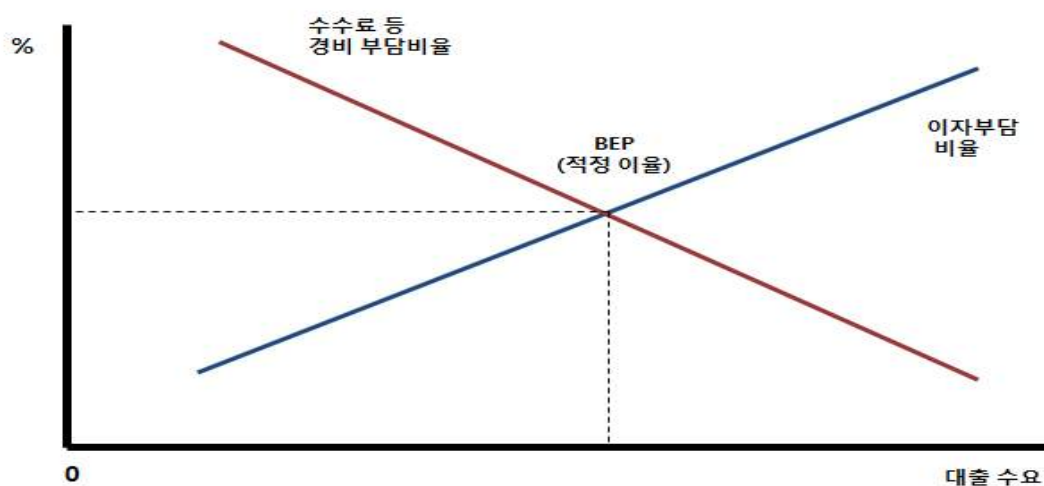


그림 14. 경비부담비율과 이자율 간 상관관계

75) 당연한 말이지만, SECC 내에서 빌린 「신용」은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신용」으로 갚아야 함. 단, 신용 대출에 따른 이자는 센터의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상환해야 함

시중금리가 높으면 신용확대 정책을 통해 회원들의 이자(=조달금리) 부담을 줄이면 되고 시중금리가 낮으면 대출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수수료(=경비) 비율을 높이면 된다. 이 방법은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경기가 좋으면 대출을 확대하는 시중은행의 경기 「역행적인」 여신정책과 반대로 움직임으로써 회원들의 현금흐름을 도울 수 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뺏고 해가 나야 우산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과 달리 비가 오면 우산을 내어주고 해가 나면 우산을 거두어들이는, 즉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신용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호황이면 대출을 줄이는 경기 순행적인 흐름을 타고 감으로써 불황기에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일종의 안전망Safety-Net을 제공해주는 것이다.⁷⁶⁾

그 밖에 지방정부(=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민간 기부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 사업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인정해 센터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금 Subsidy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공익재단이나 자선단체들로부터 기부나 후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SECC가 사회경제 조직들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조自助조직이라는 점, 나아가 향후 이 진영에 건강한 주체들이 많이 유입되어 규모화가 이루어진다면 내부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지원금에 기대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76) 이 정책이 스위스 비어은행이 시중은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며, 오랜 기간 동안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음

4.3 순환체계

SECC는 발행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할당(=유통)됨으로써 시스템 내에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여기서 할당Allocation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SECC가 회원들의 위치와 자격에 따라 달리 배분되기 때문이다. 회원은 권한 및 의무 정도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며, 회원 요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SECC 즉, 신용화폐의 총량Quantity 한도가 달라진다.

4.3.1 회원의 권리·의무사항

최초 SECC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준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전 예비 실험단계로,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획득해야 한다. 요건이란, 내부 규약이 정한 최소 거래실적⁷⁷⁾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 달성 후, SECC 회원이 지켜야 할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센터는 SECC에 가입한 회원(=준회원)에게 기본신용Basic Credit을, 정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에게는 이에 더하여 추가신용Additional Credit을 제공한다.⁷⁸⁾ 기본신용과 정회원 자격 획득 후 지급되는 최초의 추가신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 하지만 이후 거래실적이나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가신용의 한도는 등급Tier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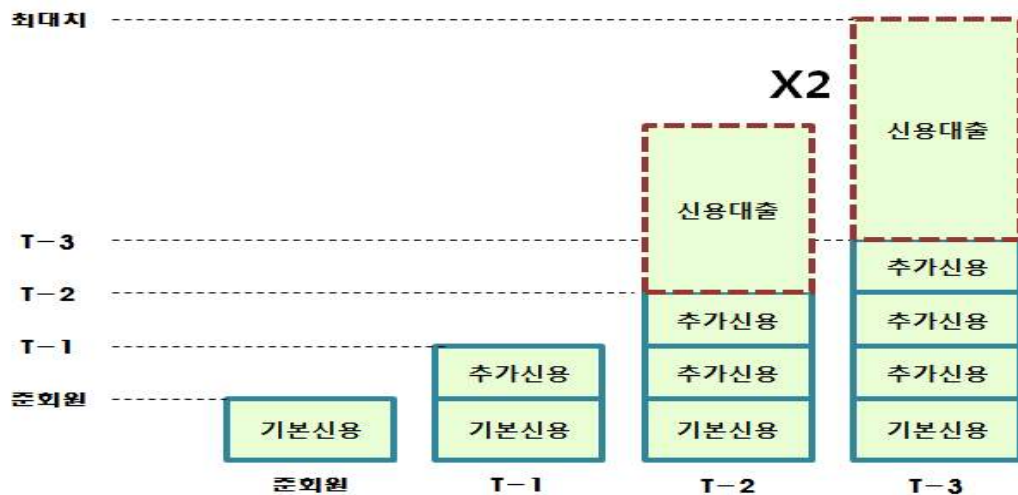


그림 15. SECC 회원 등급별 신용한도 기준

77) 낭트화폐의 경우, 회원 자격을 차등화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1건 이상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교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정회원)을 부여하고 있음

78) 추가신용에 대한 수요는 비어와 낭트화폐 모두에서 발견되며, 이는 신용화폐 모델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음

준회원은 기본신용만을 사용할 수 있다. 준회원이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면, 추가신용을 배분받는다. 추가신용은 회원 등급에 따라 3가지 단계(T-1, T-2, T-3)로 차등 지급된다. 등급 심사는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매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등급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한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신용대출은 「T-2」 등급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신용의 최대 2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본신용을 “1”이라고 할 경우 「T-3」 등급은 최대 “4”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총 신용한도는 “8”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T-1」 등급에 대출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가입 초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신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 보면 된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정회원은 모두 3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 기준 산정은 ①매 6개월 단위로 평가 및 갱신이 이루어지고 ②거래실적 만을 평가대상으로 삼으며 ③실적 평가 시, 판매량(공급자 위치)과 구매량(수요자 위치)의 가중치Weight를 달리 산정하고⁷⁹⁾ ④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거래실적 이외의 것을 배제하는 이유는 SECC가 시스템 내에서만 쓰이는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시스템 외부(=시장)에서 평가요소를 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⁸⁰⁾ 또 ③판매와 구입의 가중치를 달리 가져가는 까닭은 구매보다 판매가 상대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크므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회원은 등급기준과 상관없이 최소 거래 기준 이상의 교환실적을 달성해야 한다. 정해진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규약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실적 달성을 회원 의무사항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회원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SECC는 곧바로 시스템 위기⁸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를 희망하지만 마땅한 거래 상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들은 구입을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목을 작성해 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서가 접수되면, 센터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사회경제 조직을 네트워크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만일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거래 실적 기준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79) 판매량과 구매량을 「2:1」의 비율로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80) 채무제표나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경우, SECC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목적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81) 거래실적 및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신용화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국에는 기능이 멈추어버리는 현상을 말함

4.3.2 화폐 발행

SECC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화폐량이 필요할까.

SECC는 회원들에게 제공된 신용을 기반으로 순환되는 구조이므로 할당된 신용 가운데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돈을 화폐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SECC 시스템에서는 화폐량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회원들의 화폐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화폐량을 적절히 조절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회원 간 거래가 살아나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대출을 확장해 추가로 신용을 창조하고, 반대로 거래가 위축되어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대출을 억제해 유통량을 줄이면 된다. 화폐의 수요사정이 바뀌는 정도에 따라 화폐 수량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쓰는 일반적인 통화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⁸²⁾

그렇다면 적절한 화폐 수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는 화폐수량방정식⁸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정식에 따르면, 일정한 공간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합계는 지불된 화폐 금액의 총합과 같다. 이 명제를 식으로 바꾸면 「 $MV = PT$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좌변의 M은 화폐량, V는 유통속도를 말하며 우변의 P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가격, T는 거래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SECC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모두 1천 개이고 이들의 평균 가격이 1만 원이라면, 거래 금액은 총 1천만 원이다. 만일 화폐가 ①한 달에 한 번만 회전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화폐량은 1천만 원이다. 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 ②한 달에 열 번 회전한다고 하면 1백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circled{1} \text{ 천만 원(화폐수량)} \times \text{월 1회(순환횟수)} = 1\text{만 원(평균가격)} \times 1\text{천 개(거래량)}$$

$$\textcircled{2} \text{ 백만 원(화폐수량)} \times \text{월 10회(순환횟수)} = 1\text{만 원(평균가격)} \times 1\text{천 개(거래량)}$$

결국 화폐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즉, 가격(P), 거래량(T), 속도(V)를 측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화폐수량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폐 유통속도인 순환횟수다.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일반 시장에서 이 요소들을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SECC에서는 개인별 거래 실적을 집계해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⁸⁴⁾

82)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화폐 수량이 많은가 적은가는 복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화폐 수량의 변화와 화폐 수요사정의 변화」라고 말한 바 있음

83) 계량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정식화한 방정식으로, 화폐수량방정식 혹은 교환방정식이라고 불림

84) 각 회원의 신용사용 내역(우변)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화폐 수량(좌변) 역시 개인별 집계가 가능하므로 간단한 계산으로도 화폐 유통속도를 측정할 수 있음

4.3.3 지급결제 수단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건네든, 공과금을 내든, 은행을 통해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은 대부분 지급(=지불)과 관련이 있다. 이 지급을 매개해주는 도구가 바로 결제수단이다. 결제의 역사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해 온 과정이었다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라 널리 보급된 이유는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SECC는 종이화폐나 신용카드 등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은 쓰지 않고 커뮤니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자체 결제수단을 사용한다. 자체 결제수단이란,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기기 앱App을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말한다. 별도의 결제수단을 특정한 이유는 SECC가 외부 세계와의 접촉 없이 「폐쇄적으로」 유통되는 돈이기 때문이다.⁸⁵⁾

SECC는 법정화폐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판급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과도 구별된다. 비트코인은 개인 간(=P2P)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법정화폐와의 환전이 가능한 쌍방향Interactive 화폐인 반면, SECC는 정해진 커뮤니티 내의 회원들끼리만 쓰는 화폐이며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화폐Game Money」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SECC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 지급결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구성원들 간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Unit of Account만 합의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매개수단은 종이로 된 약속어음이나 수표일 수도 있고, 암호화된 기호일 수도 있으며,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회계장부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약속어음이나 수표 등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관리가 어렵고 화폐 흐름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등 결제 전용카드는 익숙한 결제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수수료 등 관리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좋은 결제수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의성이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바일 기반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호체계Code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지급을 하고자 할 때, 앱App을 작동시켜 회원번호, 품목, 결제금액, 지급일시 등의 결제 정보가 담긴 「코드」를 센터와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발송해주는 것이다.

85) 그런 점에서 SECC는 현행 법령 특히 전자화폐 등 전자결제 방식을 활용한 금융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일종의 ‘독립화폐’라고 할 수 있음

센터 호스트Host에서는 발송된 거래내역을 시스템에 기록, 저장하고 물건을 판매한 회원은 본인 계좌에 (+)신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IC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프로그램⁸⁶⁾만 만들어 실행하면 되므로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므로 다방면에서 좋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그림 16. 모바일 뱅킹시스템 Cyclos (by STRO)

SECC 안에서 거래를 할 때 가치척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SECC의 가치는 법정화폐의 가치와 동일하다. 즉, SECC 1원은 법정화폐 1원과 동일한 가치 또는 값(=가격)을 갖는다. 법정화폐와 SECC의 가치척도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법정화폐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격)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폐 단위까지 법정화폐와 똑같이 「원won」을 쓸 필요는 없다. SECC의 화폐가치를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해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화폐 단위는 원이 아닌 다른 단위를 써도 된다.⁸⁷⁾ 외국의 대안화폐들은 자국 화폐단위 앞에 지명을 넣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들의 경우, 조상 전래의 옛 이름⁸⁸⁾을 쓰는 경우가 많다.

86)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온라인 뱅킹시스템 전문회사인 STRO(Social Trade Organization)가 개발한 Cyclos를 들 수 있음.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지급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4.0버전까지 출시되어 있음

87)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 단위(원)를 사용할 경우, 이 화폐가 강제적인 통용능력을 가진 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88) 대표적으로 누리, 품앗이, 문(文) 등이 있음

4.3.4 결제 프로세스

지급결제란 거래 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며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방식과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법정화폐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결제과정은 자금의 이체를 지시하는 ①지급, 금융회사들끼리 입출금 내역을 정산하는 ②청산, 실제로 소비자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③결제라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종이화폐는 이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구매 의사를 가진 사람이 현금을 제시하고 판매 의사가 있는 이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간단히 거래가 끝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결제기술이 발달하면서 과정이 압축되거나 아예 결제과정이 사라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⁸⁹⁾ 결제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SECC의 경우, ②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①지급과 ③결제만으로 과정이 마무리된다.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이유는 자금 중개기관이 단수(=센터)여서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센터에 알려주고(=지급) 센터가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신용화폐를 넘겨주면(=결제) 되는 것이다.

SECC에 적용될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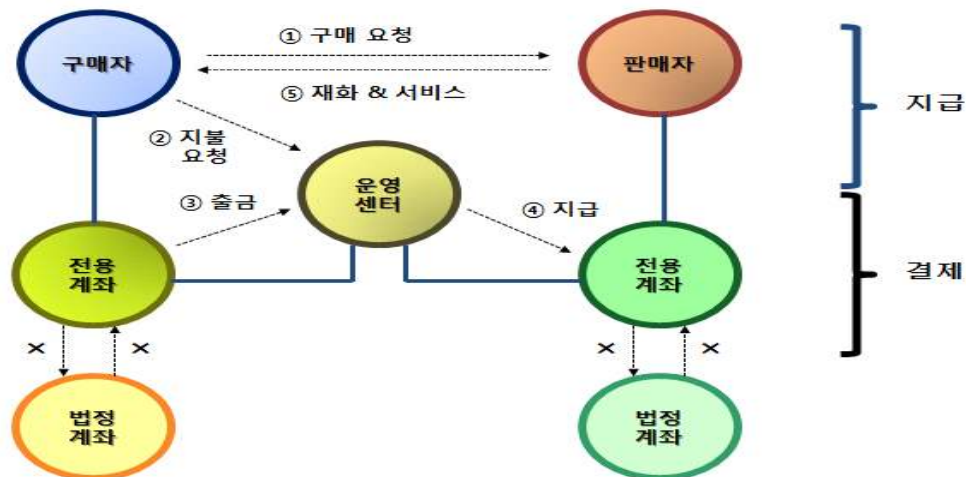


그림 17. SECC 지급결제 프로세스 ①

89) 대표적인 사례로 모바일 차량이동 예약서비스 우버(Uber)를 들 수 있음. 우버 택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수증도 핸드폰으로 발송되는 등 결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①구매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마친 후 ②센터에 지불요청을 하면, 센터는 ③구매자의 계좌에서 화폐를 인출해 ④판매자의 계좌로 넣어주고 판매자는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⑤구매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과정은 종결된다. 그림 17에 나타난 것처럼, SECC는 법정화폐와 무관한 돈이기 때문에 법정화폐 기반 계좌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 구성 측면에서, SECC의 지급결제 프로세스가 가진 특징은 작동방식이 단순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시장 결제방식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교환 가능한 제품 목록을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고 즉시 지불이 가능하다. 센터의 승인절차 및 결제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하루 정도의 시간(D+1일)이면 충분하다.

센터를 거치지 않고 회원들 간 직접 거래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도 있다. ①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마치면 센터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②구매자의 계좌에서 화폐를 인출해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③판매자는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④구매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된다.

회원 간 직접 거래방식을 적용한다 해도 회원들은 계좌 잔고에 있는 신용화폐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다. 다만, 최저결제기준의 준수 등 내부거래 표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표준 거래지침을 프로그램화하여 규정을 벗어날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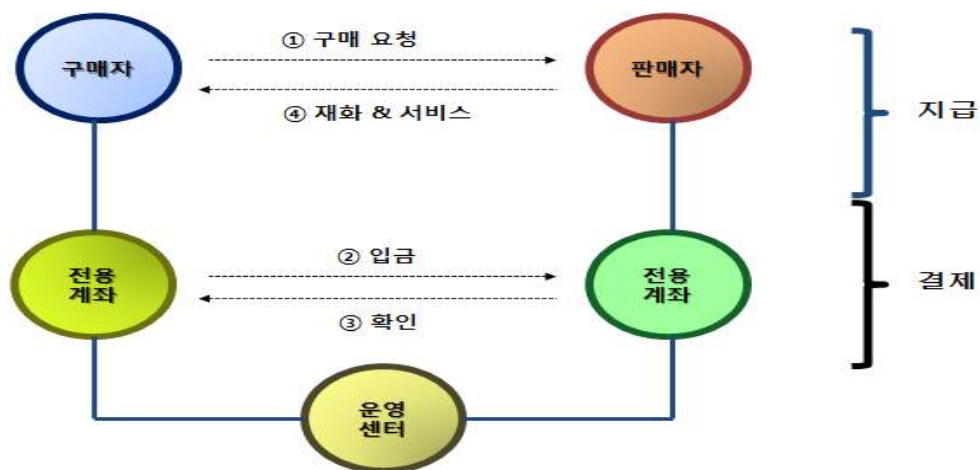


그림 18. SECC 지급결제 프로세스 ②

제5장 사업 실행

5.1 사업추진 단계

SECC 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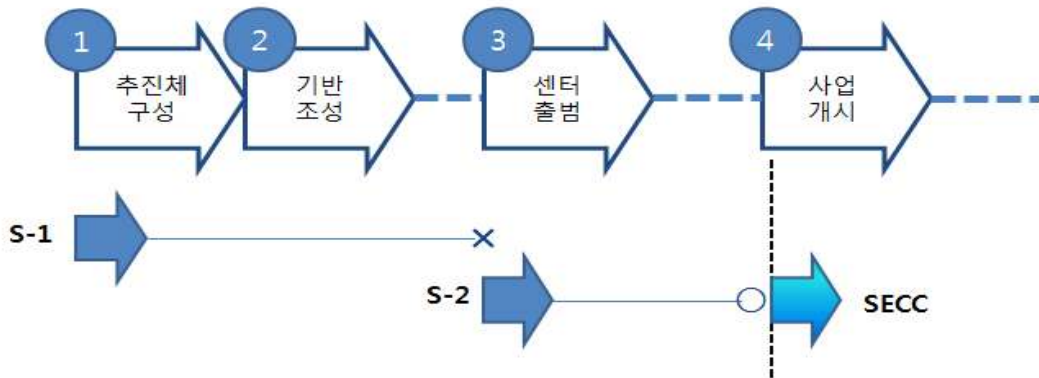


그림 19. SECC사업 실행 단계

첫 번째(S-1)는 착수 전 준비 단계로, 사업 추진주체를 구성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무엇보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경제 조직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기본계획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S-2)는 실행 단계로, 운영센터를 출범하고 실제 사업을 개시하는 단계이다. 사업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 실행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초기에는 회원 모집 및 화폐 발행을 통해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운영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구축한 SECC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착수 전 준비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계획서의 작성이다. 기본계획 Master-Plan 수립이란, SECC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포괄하는, 말 그대로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서에는 운영체제, 센터의 역할, 회원 확보방안 등 항목별 세부 실행방안은 물론 회원과 실무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계획서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화폐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방안
- SECC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령 검토

- 센터의 역할과 기능, 책임 범위
- 사업 유지를 위한 수익 창출 및 비용 확보방안
- 회원 확보 및 관리 방안
- 주요 사업위험 분석 및 대처 방안
- 회원 거래수칙
- 관리자용 업무 매뉴얼
-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제

SECC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❶추진주체TaskForce-Team를 그룹 내부에서 선발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사업을 이끌어갈 인력들이 준비과정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❷운영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은 기반 조성단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화폐사업이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Hardware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용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의 질 높은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핀테크Fintech의 발달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정 형식 포스POS 단말기 등 구형 인프라에 의존한 시스템 개발은 낭비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SECC는 일반 전자화폐와 달리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제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큰 문제없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❸센터 출범 단계에서 중요한 검토사항 중 하나는 「운영센터를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점이다. SECC 사업은 단순한 「돈」 관련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회경제 진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 사업이며, 센터 역시 사회경제 영역의 일원이다. 따라서 센터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공동 출자, 출연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⁹⁰⁾

정부(=서울시)가 법인 설립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경우, 재정 출연이나 출자가 이루어진 다 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다. SECC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90) 스위스의 비어는 협동조합으로 출발했으며 프랑스 낭트화폐의 사무국인 낭트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일원임

④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센터를 비롯한 사업 추진그룹들이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업무가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사회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설명회, 집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SECC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SECC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조직도 회원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회원에 가입한 이들도 탈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대로 거래 및 교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없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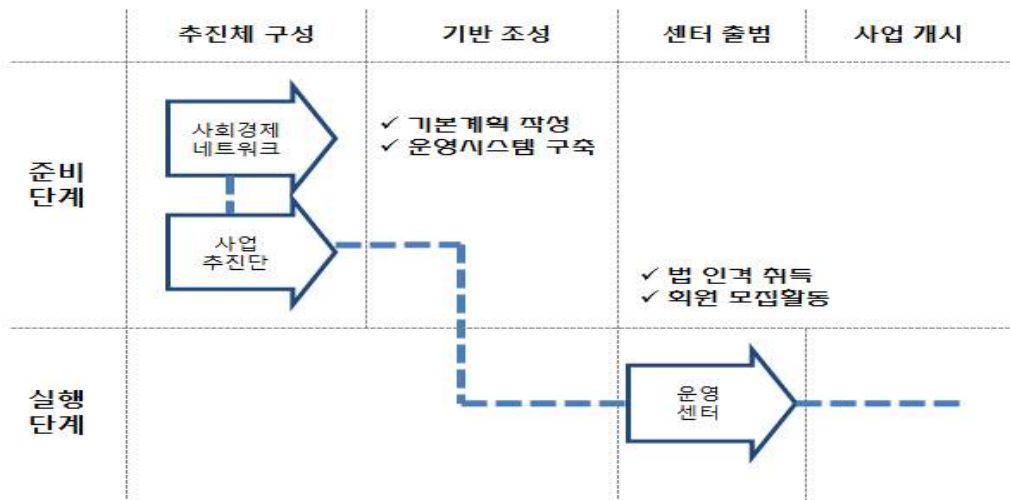


그림 20. SECC사업 실행 단계별 추진주체 및 핵심 업무

5.2 비용처리 방법

그렇다면, SECC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했던 많은 대안화폐들 가운데 훌륭한 체계와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문을 닫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비용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SECC는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조달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비용을 덜 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회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먼저 비용구조를 살펴보자.

SECC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①법인 설립비용을 포함 ②H/W 설치비용 ③S/W 및 개발비용 ④운영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②,③이 프로그램 개발, 서버Server 구축 등 사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비용이라 할 수 있고 ④운영비는 SECC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유지보수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운영비 중 인건비는 센터 상근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관리비는 회원 대상 교육비, 자료 홍보비, 사무실 유지를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 그밖에 경상비로 분류할 수 있는 몇 가지 비용들이 추가될 수 있다. 사무 공간 등 현 서울시 사회경제 진영이 보유한 여러 자원들을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초기 설립비용 내역을 최소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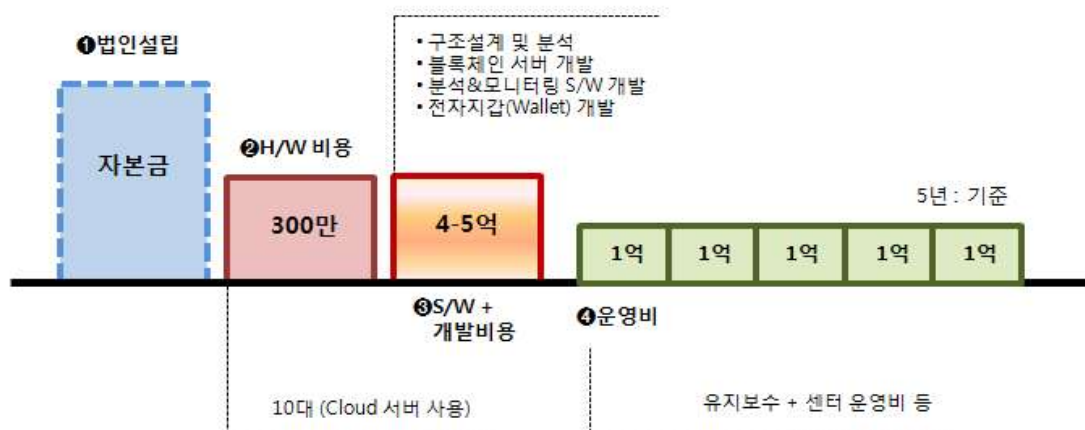


그림 21. SECC 사업 비용구조91)

91) 엑투스 협동조합(www.actus.kr) 제공

②H/W 및 ③S/W 개발비용은 SECC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4~5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세부적으로는 하드웨어 구축, 프로그램 설계 및 S/W 개발, 모바일 기반 앱App 개발비 등을 말한다. ④운영비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간 1억 원 내외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총 5년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10억 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용 충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앞에서 회원들에게 받는 비용 중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⁹²⁾ 아래 표는 현재 서울 사회경제 영역에 속해 있는 조직들이 SECC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상호거래를 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수수료 수입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업종	①조직수	②조직수(1/2)	③평균 가격	④순환횟수	⑤거래금액	⑥총거래액	⑦수수료(월)
교육	385	192.5	100,000	9	900,000	173,250,000	1,732,500
도소매	692	346.0	100,000	18	1,800,000	622,800,000	6,228,000
도시농업	30	15.0	100,000	7	700,000	10,500,000	105,000
도시재생	22	11.0	100,000	13	1,300,000	14,300,000	143,000
문화예술	243	121.5	100,000	10	1,000,000	121,500,000	1,215,000
물류&운송	57	28.5	100,000	15	1,500,000	42,750,000	427,500
방송출판미디어	148	74.0	100,000	15	1,500,000	111,000,000	1,110,000
보건의료	52	26.0	100,000	11	1,100,000	28,600,000	286,000
사회서비스	96	48.0	100,000	7	700,000	33,600,000	336,000
신재생에너지	19	9.5	100,000	10	1,000,000	9,500,000	95,000
여행관광	24	12.0	100,000	8	800,000	9,600,000	96,000
연구개발	43	21.5	100,000	7	700,000	15,050,000	150,500
일반서비스	274	137.0	100,000	18	1,800,000	246,600,000	2,466,000
일반제조	218	109.0	100,000	18	1,800,000	196,200,000	1,962,000
부동산&임대	26	13.0	100,000	10	1,000,000	13,000,000	130,000
재활용	49	24.5	100,000	9	900,000	22,050,000	220,500
정보통신기술	40	20.0	100,000	11	1,100,000	22,000,000	220,000
주택건축	85	42.5	100,000	10	1,000,000	42,500,000	425,000
	2,503	1,251.5			20,600,000	1,734,800,000	17,348,000

표 4. SECC 월 신용화폐 거래금액 및 수수료 구조

①총 2,503개의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 중 ②절반가량(1,251개)이 거래에 참여한다고 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가격이 ③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④순환 횟수란, 앞서 3장에서 다루었던 타 업종과의 호환 가능성을 말한다. 교육 분야는 9개의 업종, 사회서비스는 7개의 업종과 교환할 수 있고 도소매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업종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92) 4장 「수익모델」을 참조하기 바람

이제 ③평균가격과 ④순환횟수를 곱해보자. 둘을 곱하는 이유는 거래금액, 즉 조직 간에 거래되는 화폐금액을 알기 위해서다. ⑤거래금액이란 한 개의 조직이 한 달 동안 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조직들과 한 번씩만 거래를 해서 얻어진 금액을 합한 숫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교육 업종에 종사하는 어떤 조직이 호환 가능한 타 업종에 종사하는 9개의 조직들과 각각 한 번씩 교환을 했다는 뜻이다.⁹³⁾

다시 말하면, 여기서 ⑤거래금액이란 단위 조직 당 월(月) 신용화폐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별 소득에 ②거래 참여조직 수를 곱하면 ⑥총 거래금액이 산출된다. 이 금액은 한 달 동안 SECC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체 조직들의 신용화폐 거래의 합계액이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약 17억 원 정도가 SECC를 통해 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징수한다고 할 경우, ⑦월 수수료 수입은 약 1천 7백만 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회원들 간 거래가 더 활성화되거나 거래수수료 징수기준을 높일 경우 수입액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신용대출을 발생시킬 경우, 수수료 수입 외 이자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수입구조는 훨씬 안정적인 토대를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수익 창출을 고민하는 것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SECC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므로 소요 비용의 규모에 맞게 수익창출 방법을 적절히 조절해가면 된다. 이는 센터의 지배구조 및 법적 형태와 무관하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SECC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93) 타 업종과의 교환 가능성을 이렇듯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센터의 최소 이윤(거래수수료)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실제로 SECC내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조직 당 월(月) 거래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됨

5.3 시스템 운영 및 관리

SECC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이 따라주어야 하며 특히 사업 운영주체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센터가 지켜가야 할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자.

5.3.1 플랫폼 전략

SECC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수요자)과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공급자)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SECC는 거래를 희망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모이는 광장廣場이며 SECC 시스템 그 자체는 회원과 회원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Platform이라 할 수 있다,

SECC가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이 플랫폼에 기초한 사업 운영이다. 플랫폼 전략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상호 교류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자Mediator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SECC에서 운영주체란 곧 센터를 말하며 따라서 센터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SECC 네트워크에 가입된 회원들은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회원들의 거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회원 만족도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SECC 시스템 안에서 조달할 수 있을 때는 올라가지만, 다른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기대 수준 이하이거나 혹은 아무리 뒤져봐도 거래할만한 상대를 찾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 실망감으로 인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아예 SECC를 떠날 수도 있다.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룹들 간 연계 역할만을 담당할 뿐, 중간관리자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상통되는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SECC는 회원들 간 상호거래를 할 수 있는 열린 시장 Open Market⁹⁴⁾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플랫폼과 같지만, 개입의 정도가 이보다 훨씬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94)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서점, 앱 스토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연결되는 장(場)을 말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SECC 센터는 회원 가입부터 회원별 신용관리, 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다. 신용화폐 사업의 특성상, 회원들이 각자 알아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방임해두는 구조로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을 만들고, 연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까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사회경제 조직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선호하는 재화와 서비스 전부를 SECC가 조달해줄 수는 없다. 회원들 역시 사업 활동에 필요한 핵심 자원들을 이 공간에서 구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원들은 사업수익으로 얻은 법정화폐를 가지고 일반 시장Market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⁹⁵⁾

하지만 회원들 중 다수가 시스템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 물량Quantity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Quality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게 될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운영센터는 어떤 식이로든 거래 과정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상황이 고착될 경우,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SECC 내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수준까지 참여인원이 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일인데, 센터가 개입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이다. 이 사안은 화폐 발행기구가 개입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양질의 공급처들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센터 자신이 공급자가 되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시스템 「밖」에서 조달해오는 방법이 있다.⁹⁶⁾ 시스템 밖에서 조달해오다니,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센터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시스템 안으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당장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방법이 실현되려면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① 하나는 회원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② 다른 하나는 센터가 재정적인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센터가 보유한 돈(=법정화폐)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올 터이니 나중에 이익이 줄거나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더라도 양해해달라는 것이다.

95) 참여기업 관점에서 볼 때, SECC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96)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로 벨기에의 레스(RES)를 들 수 있음. 레스화폐를 운영하는 레스 은행(RES BANK)은 회원 간 교환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화와 서비스들을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구입,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특별판매(Special Offer)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이상의 전제들이 충족되어 내부에서 조달하기 힘든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다면, 일시적이거나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원들이 선호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일 경우, 이런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센터의 수익구조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모적인 대응책이기 때문이다.⁹⁷⁾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늘리고 품질을 높이는 길뿐이다. 종류가 많아도 품질이 떨어지면 불만이 생길 것이고, 일부 제품의 품질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면 쏠림 현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제는 SECC 사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관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5.3.2 회원 관리

SECC 회원 관리의 핵심은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다.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란, 특정한 사람이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선호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거해 한 번에 다수의 회원들을 지원하는 디지털 방식의 관리기법을 말한다. 이 원리에 따라 회원을 관리하려면 빅데이터(Big-Data⁹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회원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회원이 생산한 제품이 인기가 좋은지, 어느 업종에 구매요청이 몰리고 어느 업종이 거래상대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회원별 거래내역을 분석해서 다음에 어떤 품목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지를 예측해 마땅한 공급자가 생겼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

즉, 회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회원 관리란 곧 데이터 관리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힘은 데이터 관리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SECC 시스템의 효용가치가 달라질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회원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해 SECC 회원들이 제공해주는 각종 정보들을 취합 • 분석하여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해내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적용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시스템 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97) 회원들은 처음에는 찬성할 수 있으나 구매횟수가 늘어날수록 거래수수료 인상 등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점차 커진다는 것을 알고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개연성이 큼

98) 향상된 의사결정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자산을 말하며,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음. SECC 규모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으로 이해하면 될 것임

다음으로 ①회원 수칙을 어기거나 ②신용계좌에 부채만 남겨두고 시스템을 떠나버리는, 소위 「불량회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①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사전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예를 들어, 다른 회원이 거래를 요청했는데 갚아야 할 신용(-)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규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어려운 것은 ②갚아야 할 잔존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이탈하는 경우다. 이탈이란, 일방적으로 SECC를 탈퇴해버리거나,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는 후자든, 당사자가 배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대표적으로, 계좌에 쌓인 부채금액만큼 법정화폐로 배상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⁹⁹⁾

문제는 배상할 의사가 있어도 변제능력이 없거나 혹은 아예 잠적해버리는 경우다. SECC는 담보 없이 제공되는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부채(=신용) 상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경우, 센터는 해당 계정을 휴면처리하거나 폐쇄조치하고 잔존부채를 소각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SECC는 가상화폐이므로 채무 소각이 센터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비율이 높아질 경우, 구매 권리를 가진 회원이 판매 의무를 가진 회원보다 많아짐에 따라 화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안을 방치할 경우 회원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¹⁰⁰⁾

원론적으로 이 사안은 「관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SECC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들이 모인 자발적 공동체Community이기 때문에 센터의 관리체계보다 구성원 간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회원 중 누군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잘못하면 공동체로부터 퇴출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SECC는 신용거래만을 위한 건조한 교환소가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사업적으로 교류하는 네트워킹Networking의 장場이라는 문화가 자리를 잡는다면,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신용Credit이 아닌 신뢰Trust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99) 회원 가입 시, 약관에 이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화폐와 SECC의 화폐 단위가 같으므로 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이를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의제라 할 수 있음

100)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회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 이는 미상환 위험을 그대로 깔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언제든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함

어떤 측면에선 개별 회원들의 신용을 판단할 정보도 없고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가입한 사람들 모두에게 다른 회원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신용)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위험해보일 수도 있다. 회원이 의무이행(=상환)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供與) 사업이라면 이런 접근방식은 실제로 위험부담이 크다.

하지만 SECC처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과정은 상대적으로 위험 정도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센터를 포함, 구성원들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SECC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며 따라서 커뮤니티 구성원 간 소통이 활성화되면 신뢰감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센터는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록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들이 자유게시판, SNS 토론장 등을 통해 아무런 간섭 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통로를 통해서 회원들은 누가 신용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조직이 신뢰할만한 곳인지, 누구의 제품력이 더 뛰어나고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직이 어디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이를 거래의 준거지침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 공론의 장 자체가 SECC 회원들에게 강제적이지 않으나 매우 강력한 도덕적 제어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5.3.3 이벤트 및 홍보 방안

SECC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를 사용해 온라인Online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회원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오프라인Offline 행사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내부 결속력도 다지고 대외적으로 사회경제 영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일 교환시장Exchange-Market을 들 수 있다. 일일 교환시장이란, 하루 동안 장터를 열어 회원들이 가지고 온 물건¹⁰¹⁾을 대안화폐를 사용해 사고파는 행사를 말한다. 모든 참가 기업들에게는 소정의 종이화폐¹⁰²⁾가 무료로 제공되며, 당일 거래를 통해 취득한 화폐를 센터에 제출하면 동일 금액의 SECC로 환전되어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된다.

101) 당일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중고품 등을 싸게 교환하는 벼룩시장 성격도 지님

102) 신청 인원 및 예상 거래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용화폐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적은 금액이어도 될 것으로 봄

행사 규모를 확장할 경우, SECC 회원이 아닌 비회원들도 장터에 참여시킬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 종이화폐를 무료로 제공하진 않으나 각자 팔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와서 취득한 종이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환전은 SECC 센터가 담당하며, 환전에 따른 비용은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 처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센터 재정으로 충당한다.

이런 행사는 ❶SECC의 통화 공간을 시스템 안에서 밖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 ❷SECC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 현 기업 간 거래(B2B) 방식에서 소비자 참여(B2C) 방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❸홍밋거리를 제공해줌으로써, 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사회경제 진영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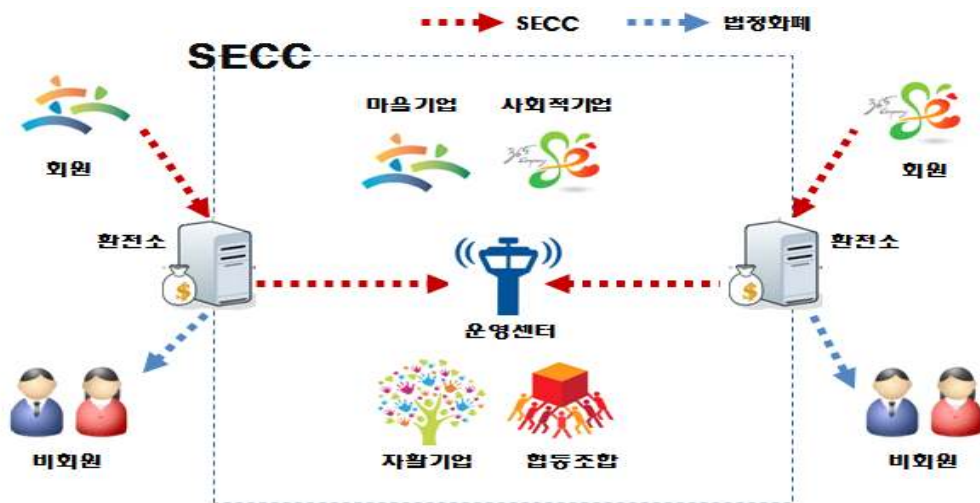


그림 22. SECC를 활용한 일일교환 장터 화폐흐름

SECC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 통제가 아니라 대화인 것처럼, SECC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역시 가능한 모든 정보Contents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개방성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 SECC가 사회경제 조직들의 공동체Community라는 영역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신용거래 플랫폼이 되려면 개방과 소통은 반드시 지켜가야 할 핵심 원칙이다.

5.4 몇 가지 유의사항

SECC 사업은 누군가가 완성된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통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SECC 사업을 추진해나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❶ 회원이 없으면 화폐도 없다

SECC는 강제력을 가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인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사회경제 조직들이 애정을 가지고 동참하지 않으면 사용할 방법이 없다. 개별 조직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잘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알아서 잘 쓰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회원이 없으면 화폐가 생겨날 수도, 유통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 가입부터 유지까지 회원을 관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 공감해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익實益이 없으면 관심이 식어버리거나 쉽게 떠나버리는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SECC가 회원들 모두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만큼 대단한 무언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센터 입장에선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독려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충성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지 모른다. SECC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회원들을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결국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센터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SECC는 회원들이 없으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회원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 화폐의 가치를 깨닫고 열정을 가지고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더불어 함께」 시스템을 운영해가야 한다는 뜻이다. SECC의 진짜 주인은 바로 회원들이다.

❷ 돈이 잘 돌게 하려면

대안화폐를 만들어 사용할 때 부딪히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기대했던 것보다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막힘과 쏠림 현상이 있다. 「막힘」 현상이란 회원 간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자주 끊기는 것을 말하며, 「쏠림」 현상이란 소수의 회원들에게만 교환 요청이 몰리고 나머지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소원해지는 것을 말한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돈이 잘 돌지 않거나 특정한 곳으로 몰리는 순환 장애현상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화폐가 몰리는 쪽(=공급자)은 사용한도 때문에 교환을 원하는 회원들(=수요자)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교환요청을 받지 못하는 회원의 경우,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활발하게 거래하는 것뿐이다. 특히 회원들의 수요가 높은 영역에 복수의 공급주체가 교환에 참여해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해서는 너무 늦다. 회원 모집 단계부터 호환성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 회원들의 숫자가 늘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화」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임계점Critical Mass을 넘을 때까지의 긴 시간의 터널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 숙제는 센터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어느 곳에 돈이 몰리는지, 어디에 돈이 흐르지 않는지 등 화폐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때그때 적절한 방안을 수립, 대응해야 한다.

③ 지방정부와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길 모색

SECC는 사회경제 조직들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사업기반 조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 자조•자립•자활의 정신을 구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간섭 없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향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면, 서울시와의 정책 연계를 통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SECC를 통해 사회경제 조직들의 자립 능력이 신장하게 된다면, 지원 및 육성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이 줄어들고 예산 효율이 증대될 것이므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따라서 공동 협력의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합 방식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나의 「독립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주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SECC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할 경우, 정치적 위험¹⁰³⁾에 노출되기가 쉽고 시 행정의 정책 운영 틀에 얽매이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103) 민선 단체장의 교체 등으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축소 또는 중단됨으로써 사실상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의미함

민간 자체역량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 사회경제 진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사회경제 지원센터) 내에 전담 인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가되, 일정 기간 경과 후 독립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SECC 사업은 제 사회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이다.

④ 신용대출은 천천히

회원들에게 무상無償으로 제공되는 화폐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회원들의 신용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거래가 활성화되어 수요층이 형성되었다 해도,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에 신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SECC 내에 「거품」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해줄 수 있다.

거품이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신용화폐의 과잉을 말한다. 원론적으로, 신용화폐는 구체적인 인간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매개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보다 화폐량이 많아지는 현상인 인플레이션Inflation과는 무관하다. 즉, 모든 거래가 이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과 화폐량은 항상 일치한다.

신용화폐를 많이 발행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실물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이외에 SECC가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발행한 화폐 중 사용되지 않는 신용잔고가 계좌 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경우, 돈은 충분한데 교환할 물건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신용거품이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SECC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돈을 자산증식을 위해 쓸 유인이 없고 단지 회원별 계좌 속에 잔고로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센터는 운영비 조달이라는 명분으로 대출을 통해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신용거품이 커질 경우,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용을 남발했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⑥ 「B2B」에서 「B2C」로

본 보고서에서는 교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 간 거래(B2B)만을 상정하고 SECC 사업을 분석했다. 현 서울시 사회경제 조직들이 생산해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참여(B2C)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SECC가 제공해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 한다.

여기서 「편익」이란 법정화폐 대신 SECC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비용」이란 이 화폐를 쓰기 위해 사용자가 치러야 하는 정보 탐색과정, 환전 절차 등 시간적인 투자와 번거로움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들은 이 화폐를 외면할 것이고, 그 반대라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SECC의 목표는 기업 간 거래를 축적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시 사회경제 진영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부 거래방식만으로는 SECC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와 서비스가 원활히 순환되는 수요·공급 간 균형점을 찾으려면 더 많은 경제주체들이 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낭트화폐가 설계 단계부터 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비영역 나아가 교통, 보건 등 공공부문까지 묶으려는 이유는 다양한 경제 영역들이 순환 네트워크에 결합되어야 시스템이 안정되고 생태계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B2B를 넘어 B2C로 나아가는 것이 SECC가 걸어가야 할 길임은 재론의 여지없이 자명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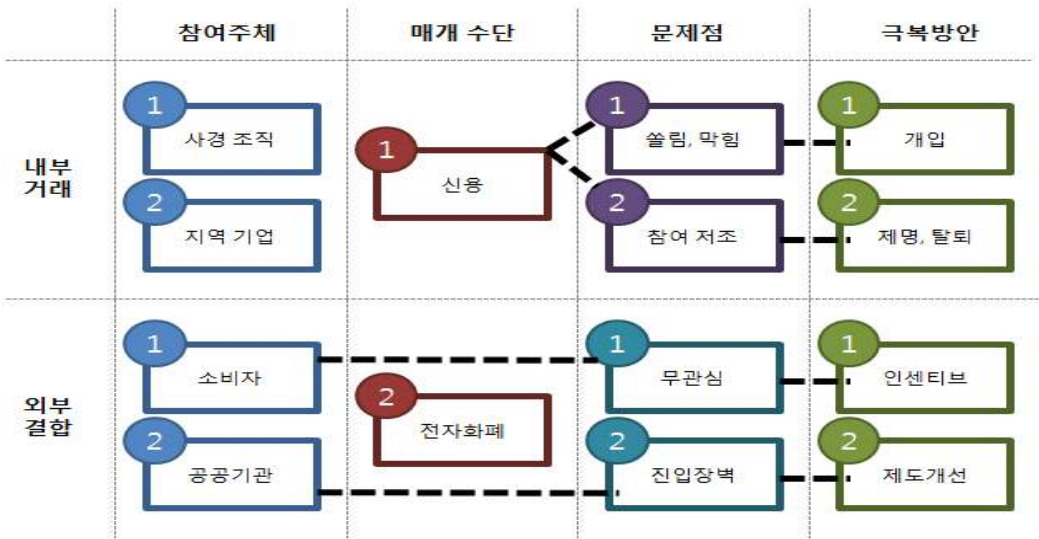


그림 23. SECC (B2B & B2C) 사업 장애물 및 극복방안

제6장 결론

물물교환은 원시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거래관행이 아니다. 가장 발달된 사회에서도 교환을 위한 매개수단과 운영체계만 존재한다면, 돈의 힘을 빌리지 않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돈이란, 국가가 보증을 약속한 법정화폐를 말한다. 가장 보편적인 교환수단인 법정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새로운 교환 시스템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법정화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디 돈이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어찌된 일인지 돌고 돌아야 할 돈이 잘 돌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하고 돈이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쌓인다. 그로 인해 가치는 충분하지만 시장에서 상품화되지 못하는 수많은 자원과 노동이 매몰되고 있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교환 가능한 자원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돈(=법화)의 결핍이 문제라면, 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시장이 화폐를 만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화폐가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서로 가진 것을 나눈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교환수단을 채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지구촌에서 대안화폐를 꿈꾸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런 것들이다. 국가가 만든 공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화폐질서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어인 상호신용Mutual Credit 화폐도 그 중 하나이다. SECC는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제 사회경제 조직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맞교환하기 위해 만든 신용화폐다. 시스템 안에서만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법정화폐와 환전할 필요도 없고,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각자의 신용만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돈으로 사회경제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SECC는 회원들만의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돈은 법정화폐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¹⁰⁴⁾

따라서 사회경제 조직들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으려면, 지속가능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법정화폐를 취득하는 수밖에 없다. 자유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경쟁에서 싸워 이겨 돈, 즉 법정화폐를 벌어야만 한다. 신용화폐는 부족한 돈을 메우는 「보충적」 수단일 뿐이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104) 화폐가 가진 속성 중 어떤 측면을 보더라도, 법정화폐가 신용화폐에 비교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돈'이라는 점은 명백함

신용화폐가 사회경제 조직들의 생존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각자도생을 하건, 협동의 힘을 발휘하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노동이며, 돈이란 그 가치를 실어 나르는 도구일 뿐이다. 화폐 그 자체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져 아무도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신용화폐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이익추구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다시 말해, 신용화폐가 제공해주는 편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많다면,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 기지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 SECC가 추구하는 가치는 동의하지만,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편익이 없다면 굳이 이곳에 머물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집합적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공유지의 비극¹⁰⁵⁾을 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용화폐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쓸모없는 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참여자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습補習이 되게 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료들과 어깨동무해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이 화폐는 사회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도정에 훌륭한 거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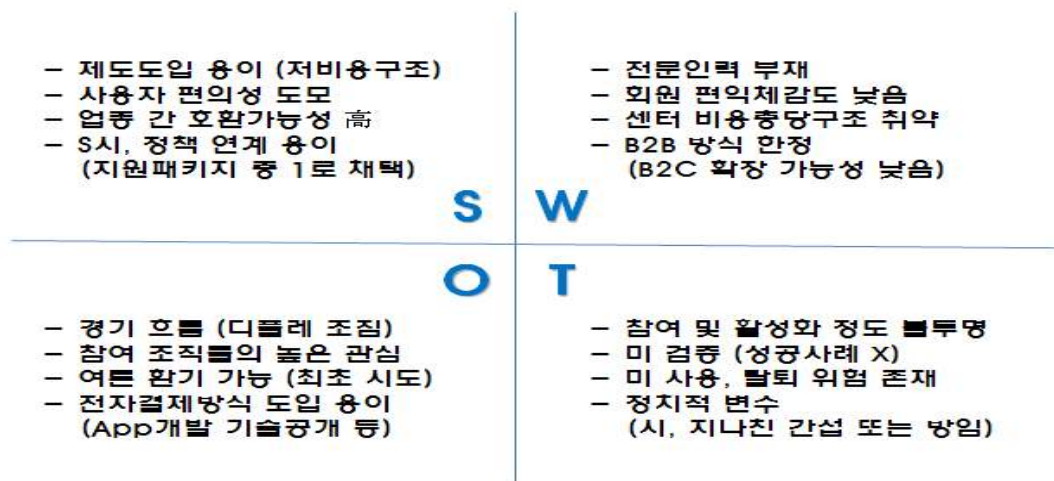


표 5. SECC 사업 : SWOT분석

105)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공익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는 집단이론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집단적 편익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스스로 편익을 만드는 데 기여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말함

위 표는 SECC 사업이 지닌 강점과 약점, 제도 도입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강점(S)으로는 ①시스템 구축 등 설치비용이 많지 않아 제도 도입하기가 용이하고 ②모바일 앱App 기반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③호환성이 높은 사회경제 조직들 수가 많고 ④이 사업을 시장의 사회경제 지원방안에 결합할 경우,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경제 조직들 중 교환 시스템 구축 시, 호환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¹⁰⁶⁾은 SECC가 가진 큰 강점으로,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Hardware와 인력Software이 잘 결합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점(W)으로는 ①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찾기가 쉽지 않고 ②신용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회원들이 실제 체감하는 편익 정도가 낮을 수 있으며 ③회비와 거래수수료 이외에는 마땅한 수입구조가 없어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 끝으로 ④사회경제 조직들의 수준이 높지 않아 시민들을 교환구조에 참여시키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①전문 인력은 발굴보다는 양성 쪽에 무게를 두고 준비 단계부터 결합시켜야 하고 ②거래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 점차 신용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③운영 경비가 모자랄 경우, 신용대출을 늘려 수입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④B2B와 B2C를 결합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나, 아직은 무리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¹⁰⁷⁾

기회(O) 요인으로는 ①디플레이션Deflation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¹⁰⁸⁾ ②사회경제 조직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 ③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안화폐 모델이기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④렛츠, 싸이클로스 등 상호신용을 기초로 한 지급결제 프로그램들의 소스Source 코드가 개방되어 있어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¹⁰⁹⁾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경기흐름을 놓고 볼 때, 단시일 내에 경제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만일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이른바 돈 가뭄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사회경제 조직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SECC를 통한 내부거래 시스템은 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방파제가 될 수 있다.

106) 보고서 3장, 「사업 환경 분석」을 참고바람

107) B2C방식을 결합시킬 경우, 결제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108)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함. 정부 보고서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2014.11)을 참고하기 바람

109)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 누구라도 프로그램을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위협(T) 요인으로는 ❶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❷아직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사례가 없다는 점 ❸회원 가입이 늘더라도 거래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회원들이 상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❹서울시가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경우, 시스템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또는 민선시장 교체 등으로 쉽게 사업을 포기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❶과 ❸이 SECC 사업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 조직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 시스템 개방 시 실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치보다 도움이 적다고 생각한 회원들이 시스템을 떠날 위험성은 없는지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지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은 센터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단지 이론적 분석에 불과할 뿐,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분명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성의 질서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도전을 받아들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 참고문헌

- <New Money for Healthy Communities> Thomas H. Greco Jr (1994)
-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eter North (2000)
- <The Economics of Community Currency> Jorim Schraven (2001)
- <The Money Trail> New Economics Foundation (2002)
- <Complementary Currency Systems in Historical Perspective> Masimo Amato 외 (2003)
- <Complementary Currency in Japan Today> Bernard Lieta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8 (2004)
- <Complementary Currency Innovation> Bernard Lietaer (2006)
- <Eating Money> Gwendolyn Hallsmith & Bernard Lietaer (2010)
- <Complementary Currencies: State of Art> Noel Longhurst & Gill Seyfa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5 (2011)
- <Motivations & Differential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Currency System> Ed Collom,
- <Energizing Money> New Economics Foundation (2012)
- <Complementary Currency and Its Impact on the Economy> Octavio Groppa, Argent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7 (2013)
- <Where does money come from?> New Economics Foundation (2013)
- <Community Currency Implementation Framework> CCIA (2013)
- <Field Research & User Requirements Digital Social Currency Pilots> d-cent. EU (2014)
-
- <엔데의 유언> 카와무라 아츠노리 외 지음, 김경인 옮김 (갈라파고스, 2000)
- <화폐 경제학> 밀턴 프리드만 지음, 김병주 옮김 (한국경제신문, 2009)
- <화폐의 종말> 토머스 H. 그레코 Jr 지음, 전미영 옮김 (AK, 2009)
-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금융감독원 (2009)
- <화폐를 점령하라> 마르그리트 케네디 지음, 황윤희 옮김 (아포리아, 2012)
-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장분석 및 대응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
- <돈의 철학> 게오르그 짐멜 지음, 김덕영 옮김 (길, 2013)
- <국내외 신유형 지급결제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2013)
-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3)
- <WIR와 스위스 국민경제> Dr. Tobias Studer 지음, 정관역 역 (2013)
- <스마트 머니> 야스오카 히로마치 외 지음, 한석주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신용화폐론> 헨리 손턴 지음, 박상수 옮김 (2014)
-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연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4)
- <돈의 반란> 문진수 지음 (북돋움, 2015)
- <디지털 뱅크,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 크리스 스키너 지음, 안재균 옮김 (미래의 창, 2015)
- <핀테크 전쟁> 브렛 킹 지음, 이미숙 옮김 (예문, 2015)
- <이슬람 은행에는 이자가 없다> 해리스 이르판 지음, 강천구 옮김 (처음북스, 2015)